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는 피부 !
자연 속에 태기 속에서도 인체에고 있는 신선한 피부 이제 세신 · 사워 위생에 만족한 청세제를 쓰지않는 천연 무공해 합금천연피부미용비누를 쓰세요.
(주)씨 · 티 : 에프 조선대학교 조선산기술센터 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온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3월 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스님들에게 철저하게 강조돼온 '무소유' 정신이 사회와 경제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스님들 대다수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있는 정도의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스님들의 무소유는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에 대한 공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부처님은 재가자들에게는 정당한 노력으로 축재(蓄財)를 이루라고 했다. 대신 그 부(富)를 널리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회의 공유로 환원하라는 뜻이다. 차제에 무소유 정신의 교훈을 경전과 어록에서 다시 새겨본다.
〈편집자 주〉

황금이 쏟아질지라도…

어떠한 소유도 없고 집착하여 취할 일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피난처이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것은 노쇠와 죽음의 소멸이다. 〈숫타니파타〉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소유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숫타니파타〉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법구경〉

나는 왕자의 지위를 문틈에 비치는 먼지처럼 보고, 금이나 옥 따위의 보배를 캐진 기왓장처럼 보며, 비단옷을 헌 누더기 같이 보고, 삼천대천 세계를 한 알의 겨자씨같이 본다. 열반을 아침 저녁으로 깨어 있는 것과 같이 보고, 평등을참다운 경지로 보며, 교화를 펴는 일은 사철 푸른 나무와 같이 본다. 〈사십이장경〉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제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제 것일까. 〈법구경〉

정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더한 포박은 없으며 어리석음보다 더한 그물은없고 망집(妄執)보다 더한 강물은 없다. 〈법구경〉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숫타니파타〉

내 생애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 표주박 하나 벽위에 걸려있어라.
〈함월스님 '표주박하나'〉

벌이 먹이를 모으듯이 부지런하게 일하면 그의 재산은 저절로 불어난다. 마치 개미집이 부풀어오르듯이.
〈장부경전〉

나와 남이 둘 아닌 것이 한몸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림살이 아닌가. 〈휴정 '선가귀감'〉

사찰 장례식장운영 '파란불'

복지부 종교시설 등에 융자지원 대폭 확대

'입종에서 장지까지' 모든 상례절차를 사찰에서 수행할 날이 멀지 않았다.

혐오시설로 인식돼 온 장례식장 설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장례식장 융자대상 및 융자액 등을 대폭 확대발표해 불교계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3일 법인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전문 장례식장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자에게 연리 7.7%, 5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건축비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융자지침을 발표했다. 건축비의 70%는 전문장례식장 1개소당 8억원 이내, 병원 장례식장 신축 또는 증·개축은 1개소당 4억원까지를 한도로 한다.

장례식장은 전국적으로 3백26곳이 있다. 그러나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막론하고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신규범씨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은 모두 병원 또는 화장장, 공동묘지 등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망인(亡人)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족을 위로할 뿐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종교단체의 참여는 시대적 요청이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는 인식부족, 재정난 등의 이유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최첨단 납골당 건립으로 화제가 됐던 영각사(주지 현법)가 계획 중에 있을 뿐이다.

현법스님은 "7만여평의 부지에 법당은 물론 납골당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2차사업으로 장례식장 화장장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보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찰과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융자지침을 활용할 수 있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신도들의 참여를 유도한 후 사찰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로병사를 모두 종교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미래형 사찰' 건립은 불교계의 복지사업 참여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사찰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필선 기자〉

백양사 재정공개 교구본사론 처음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지선)가 사찰재정 현황을 계간 〈화두와 실천〉 겨울호에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백양사는 지난해 8월까지 토지 임대 불전금 관람료 시주금 등으로 5억1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포교활동비와 관람료분담금 장학금 등으로 4억8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이 자료는 42개 말사 및 선원·강원 대중 현황(85명)과 함께 95, 96년도의 재정현황을 도표로 실어 비교가 가능토록 했다.

총무처 면담요청 거부
조계종, 사과명문화 요구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최근 공무원시험 평일실시와 관련, 총무처장관이 면담을 요청해왔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총무원측은 "관례적인 면담은 허용할 수 없으며 장관의 공식사과 및 사과공문을 발송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대한불교청년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등의 대표자들은 지난 2월 25일 김한규 총무처장관의 요청에 따라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이후 각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되풀이되는 유감표명으로는 미흡하다"며 "문서화된 해명과 사과공문을 조계종단에 보낸 후 공식사과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조계사 어머니회는 오는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규모 규탄법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자비의 탁발'이 지난 2월 26일 서울을 비롯 5개 도시서 동시에 실시됐다. 사진은 조계사 앞 탁발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자비탁발' 3천여불자 동참

성금전액 北 동포-불우이웃에 전달

조계종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2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탁발의날' 선포식을 갖고 이어 서울 탑골공원과 명동 상업은행 앞, 압구정동 갤러리 아백화점 앞과 전주 정읍 영천 강릉 등에서 '이웃과 민족을 위한 자비의 탁발'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날 조계사를 출발, 종각-종묘공원-탑골공원에 이르는 거리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설정스님 등 3백여명의 스님과 3천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거리행진 이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탑골공원 앞에서 모금활동을 펼쳤다.
〈관련기사 3면〉

탁발에 앞서 거행된 탁발의날 선포식에서 월주스님은 선포문을 통해 "우리사회의 열원인 21세기 한민족 민주복지공동체의 건설은 자비행인 보시를 일상생활화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한민족 공동체를 발원하자"고 호소했다.

농지법 회기내 처리 어렵다

국회 심의조차 불투명…전사법 통과 될 듯

지난해 12월 국회정각회 의원 전원의 발의로 마련된 불교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농지법과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회기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

지난 2월 26일 열린 조계종 총무원과 국회정각회와의 간담회에서 박헌기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할 내무위원회가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해 이날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해도 18일 임시국회가 폐회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번 회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국회전문위원의 심의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1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 자연공원법 소관상임위인 내무위는 이번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해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다음 회기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공보위에서 심의를 이미 마쳐 이번 회기내에 통과가 확실시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총무원과 정각회는 불교관계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3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특별법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불교관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개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불교 세계에 알린다"

조계종 웹사이트 3월중 개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이 3월중 인터넷상에 웹사이트 '대한불교조계종'(Korean Buddhism Chogye Order)을 개설한다. 종단 차원에서는 최초로 한국불교를 해외에 소개하는 것.

이 사이트에는 △한국불교사 △조계종 △전통사찰 △한국불교예술 △게시판 △연동서비스 등이 한글과 영문으로 각기 제공된다. 특히 '전통사찰'에서는 5백여장의 칼라사진도 제공한다. 영문자료는 지난해 총무원 문화부에서 봉축행사를 위해 발간한 〈한국불교〉(영문版)를 기본자료로 사용했다.

조계종은 이 웹사이트 개설을 위해 지난 2월27일 '실무진 시사회'를 개최했다. 시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조계종 웹사이트는 전통성과 서정성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이외에도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논문과 한국불교의 이미지에 맞는 그래픽 등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편 지난해부터 데이콤의 인터넷전용회선(56K) 서비스를 제공받은 조계종은 이번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전자게시판(BBS)과 인터넷(INTERNET)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시판' 메뉴를 활용해 종단 홍보자료와 포교자료 등을 게재해 컴퓨터 세대와 컴퓨터 동호인에 대한 포교활동도 구상하고 있다.

향후 2회에 걸친 시사회를 거쳐 3월중 공개될 이 사이트는 조계종이 2천여만원을 투자해 이현데이타시스템(대표이사 이찬영)이 개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복제 羊 성공' 불교계 시각 15면
불교문화 테마여행—통도사 7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알림 3월 1·2일 연휴로 일부지역 신문배달이 늦어집니다. 양해 바랍니다.

법공양란 발행 타블로이드 4면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역사를 느끼고 無言의 설법 듣는다"

문화유산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는 한국의 美를 상징하는 민족문화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이 땅의 천년불심이 스며 있습니다. 불교문화재는 그래서 성보입니다.

불교문화재를 바르게 이해하면 무언(無言)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숨결과 예지 그리고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적 미감과 정서의 원형질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같은 의미를 대중속에 심고 확대하기 위해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문화 테마여행'을 기획했습니다. 매월 주제를 갖고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이 행사는 종교적 특수성과 예술적 보편성이 만나 이룬 민족문화의 핵심으로 다가가는데 한 몫을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 알기 사업'의 하나로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불교문화 테마여행'에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3월 테마여행—내소사

한국의 色·線·面(목조각의 조형미와 단청)

내소사는 변산반도 남단에 자리잡은 고찰로 연꽃 국화 등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꽃무늬문살로 유명한 대웅보전(보물 제291호)과 고려시대 동종(보물 제277호)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못 하나 쓰지않고 나무들을 서로 교합하여 건축한 대웅전은 조선후기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로 천장의 꽃무늬와 뒤벽의 백의관음보살도가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 또한 일주문에서 천왕문으로 이어지는 푸푸 뽑은 전나무길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나무터널로 속진을 씻어줍니다.

귀경하는 길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채석강도 들릴 예정입니다. 봄기운 가득한 3월 호남명찰로의 테마여행에 독자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동 참 안 내

◇출발: 3월 23일(일) 오전 7시 · 조계사 앞
◇안내: 김정희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
◇회비: 3만원(사찰에서 점심공양)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한주여행사 (02)738-81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입금후 한주여행사로 연락바랍니다.

4월 27일 석굴암 남산—한국인의 얼굴
5월 25일 대흥사—禪 茶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영축산 통도사에 있는 전각들과 탑 석등, 이것들과 어우러져 있는 자연, 그속에서 불법을 꽃피운 위대한 고승들. 어느하나 불연(佛緣)과 떼 놓을 수 없다.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 가르침을 직접 설하신 인도 영축산과 통한다는 통도사, 부처님 진신사리가 대웅전 뒤쪽 금강계단에서 살아 숨쉬고있어 구태여 부처님 형상을 모실 필요가 없다는 불보(佛寶)사찰이다. 통도사 테마기행은 불교문화답사에 그치지 않는다. 1천3백여년 시공을 넘어선 우리 조상의 지혜와 숨결을 오늘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 불교문화테마여행 참여).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사 설

민족 하나되기 '거리탁발'

조계종이 35년만에 종단 차원의 대대적인 탁발 행사를 4일까지 벌이고 있다. 이웃과 민족을 위한 '자비의 탁발'은 지난해말 총무원이 밝힌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성금 모금 사업'의 일환이다.

이 행사는 북한동포와 중국동포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민족 공동체 운동이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수백여 스님이 주도하는 이 탁발행사는 조계사에서 선포식을 가졌고, 이어 전국 5대 도시에서 가두 탁발 행진과 불자연예인의 모금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탑골공원에서는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문과 이웃과 민족을 위한 발원문이 낭독돼 이 시대의 모순과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스님들의 1천배례가 장엄하게 펼쳐졌다.

이번 '자비의 탁발' 행사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모두의 가슴 속에 일렁이는 자비의 불꽃이 하나가 되어 삼천리 방방곡곡에 메아리칠 때 계급과 빈부와 이념의 갈등이 홍로(紅爐)의 일점설(一點雪)로 녹을 수 있다는 발원이 담겨있다. 그것은 일체원융의 무이법계에서 함께 노니는 불국토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탁발은 그동안 종단차원에서 금지돼 왔다. 조계종이 통합종단을 출범하던 지난 62년 종교를 등에 업은 사이비 탁발의 횡행을 막아보자는 고심의 결단으로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 조치로 인해 잃은 것도 적지 않다. 그 첫째는 청빈과 금욕이라는 수행자의 브라마챠리야(梵行)를 단련하는 장을 걷어버린 것이고, 둘째는 수행자의 행동반경을 난야(蘭若)에 한정함으로써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자비행의 기회를 축소시켜 버린 것이다.

탁발을 통해 수행자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욕망을 줄이는 법, 그리고 분노와 슬픔을 자제하는 법을 배운다. 세속적 이득에 대한 탁발승의 무관심, 그들의 고요하고 위엄있는 행동거지는 비신도들을 불교에 귀의케 하는 한편, 기존의 신도들의 신심을 더욱 두텁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고귀한 탁발의 전통은 역설적이게도 대승의 발전과 함께 쇠퇴한다. 소승과는 달리 대승은 탁발을 거의 포기하고 그것이 지닌 이타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강조하는데 힘썼다.

아상가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 해명하는 '옛적의 가난을 내던진 이유'는 대단히 고상하고 이타적이지만, 이는 요즘 넉넉한 부를 쌓고 지내는 기독교인들의 변명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인도밖에서 탁발행의 전통은 이어지지 못했다. 당대(唐代)에 그 옛날의 탁발을 부활시키고 계율의 엄격한 실행을 요구하는 종파, 즉 율종이 창건된 적이 있었지만 곧 쇠락하고 말았다.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통적 의미에서의 탁발은 찾을 길이 없다.

아무래도 탁발은 그 옛날 초기불교의 빛나는 광휘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와 거대조직의 시대에도 탁발은 여전히 숨겨져 있는 보석이다. 상구보리(上求菩提)의 자리적(自利的) 측면에서의 탁발은 쇠퇴했지만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이타적(利他的) 방편으로서의 탁발은 앞으로 무궁무진 개발해야할 불교의 활로이다. 그것은 미래 불교가 기획하고 있는 불교문화행사로서도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대중의 종교적 귀의와 관용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이비늑탈은 제도적 정비와 교화적 장치를 통해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탁발 자체를 언제까지 봉쇄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번의 민족 대화합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행사가 탁발의 가능성을 다시금 시험하고 교육과 수행차원에서 재발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열린마당

사찰재정 공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지선)가 최근 계간지 〈화두와 실천〉(발행인 효림) 겨울호에 사찰의 재정과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교구본사로서는 처음있는 일로, 사찰 공개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양사는 '운영보고'를 통해 96년의 수입현황을 밝히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소개했다. 이를 계기로 사찰의 열린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무소유정신 생활화…本寺부터 솔선

지선 〈백양사 주지〉



사찰재산은 어느 누구의 개인 재산일 수 없다. 비록 당해 사찰의 주지라 하더라도 주지는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일 뿐이다. 즉, 사찰재산은 불교종단의 재산이며, 나아가서는 전 불교도의 재산이다. 따라서 사원의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집행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개돼야 한다.

백양사의 이번 재정공개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출발이며, 더 나아가 개혁의 과제를 실천하고 모범을 창출, 종교운동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또 승가의 청정함과 무소유정신의 생활화, 자기 수행력을 바탕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불교계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더불어 극히 일부의 금품거래와 비리로 인한 불신을 없애고 신도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물론 사찰재정공개에 따른 서류관리의 번거로움과 책임감의 결여, 신도들의 반대, 지속성여부 등으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원경제의 투명성과 삼보정재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공개돼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다. 전면적인 재정공개가 어렵다면 신도회에 만큼은 공개해 사찰재정이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재정공개는 우선 본사차원에서 솔선수범해 개사찰에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신심과 공심에서 우러나와 절 살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함이 중요하다.

재가불자 운영 참여…승속 신뢰 기여

법타 〈은해사 주지〉



사찰재정공개는 획기적인 불교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사찰의 소임자들은 과거 가람수호 차원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사찰경영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밝히고, 포교와 인재양성 사회복지를 위한 재투자에 아낌없이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찰의 재정과 운영의 공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소액 및 객승의 여비지출에 따른 영수증 처리의 어려움, 소임자들간의 믿음 결여 등을 고려하다보면 난관도 많다.

특히 사찰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경우, 분담금이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철두철미한 사찰재정공개를 통해 신도들을 포교하고, 진솔한 전법을 통해 신도들로부터 보시금을 헌납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이미 시대의 흐름이며, 종교인으로서 현대인들에게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승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현행 신도법 사찰운영위원회법 등 종법에 따르면, 신도들의 사찰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승가와 재가 사이의 신뢰를 쌓고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위상을 높이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도회의 구성, 나아가 올바른 불교관을 지닌 신도상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승가와 재가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부분이다.

공개운영 현황

금강정사등 일부사찰 시행 '긍정반응'
조계종 재정공개·신도참여 등 명문화

이미 몇몇 사찰은 공개운영을 하고 있다. 삼선포교원(원장 지광), 강남포교원(원장 성렬),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벽암), 파주 보광사(주지 효림),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 그리고 태고종 소속의 관악산 성주암(주지 종연) 또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와 서울상계동의 사천왕사(주지 성덕) 등이 재정을 공개하고 사찰운영에 신도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금강정사의 경우, 매월 1회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운영현황을 공개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사찰소임자와 구역별모임인 법등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관음사는 이 사찰에서 운영하는 영남불교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각 기수별모임 대표 20여명이 사찰살림을 의논하고 행사를 집행하고 있다. 교육된 신도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사찰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신도는 "직접 사찰살림을 맡다보니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이 느껴진다"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주암도 사찰의 재정현황을 월간 〈불교〉에 공개하고 있다. 보광사는 종무실과 별도로 재가자가 참여하는 종무기획실을 설치, 이곳에서 사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94년 개혁회의에서 개정한 종헌과 신도법 사찰운영위원회법 등 관련 종법에 사찰의 운영현황과 재정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종헌 제124조에는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도법에는 '재적사찰과 종단의 유지운영에 참여할 권리'(제5조)를 부여하고 있다.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공영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사찰운영의 능률화, 공개화, 공정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찰운영위원회법은 당해사찰의 소임승려와 신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사찰의 예산 결산과 각종 불사와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토록 하고 있다. 이는 종헌 제8조에 규정한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서 구성한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한편 중앙신도회 창립을 앞두고 교구신도회를 비롯해 각 사찰신도회 구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신도의 사찰운영 참여, 이를 통한 재정공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어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대한민국 국민은 무슨 업을 지었길래 번번히 고개 숙이는 대통령을 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국민이 원한다면…"

초대대통령 이승만박사는 떨리는 음성으로 '국민'이란 말을 전제하면서 하야했다.

내각책임제에서의 윤보선대통령은 '4월의 꽃'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청와대생활을 짧게 마감했다. 박정희대통령은 총을 맞았다. 과도기의 최규하대통령. 침묵하는 자신에게 국민이 무얼 원하는지 아마 알 것이다.

전두환대통령은 어떠했나. 8년 집권을 마치고 연희동 사저로 돌아왔으나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권력의 뒷맛은 쓰다못해 아렸다.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나라 밖으로 나가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가라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

그는 국민앞에 무조건 항복하고 부처님 품을 찾았다. '백담사 유배'로도 모자랐는가, 다시 수인(囚人)이 되었다.

그런데 이유야 어디있든 김영삼대통령도 2월25일 '대국민 사과담화'를 발표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직을 맡은지 만4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날 저는 참으로 괴롭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의 10개월 남짓한 임기가 지나면 우리는 또 새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잘 뽑아야겠다. 뽑힌 대통령도 잘 해야한다. 다시는 이 나라에 고개 숙이는 대통령이 없도록.

뒤를 이은 노태우대통령도 임기를 마쳤으나 국민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교도소로 갔다. 이 무슨 불운의 연속인가. 역대 대통령들의 이같은 수난은 이 나라 반세기 역사를 대변한다.

그래서인가 4년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김영삼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성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도 아쇼카왕의 말을 들어보자.

"관리는 고위·하위직을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범법하기 쉬운 자들을 일깨워 줘야한다."

이말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0691

현대만평 박구원



북한동포 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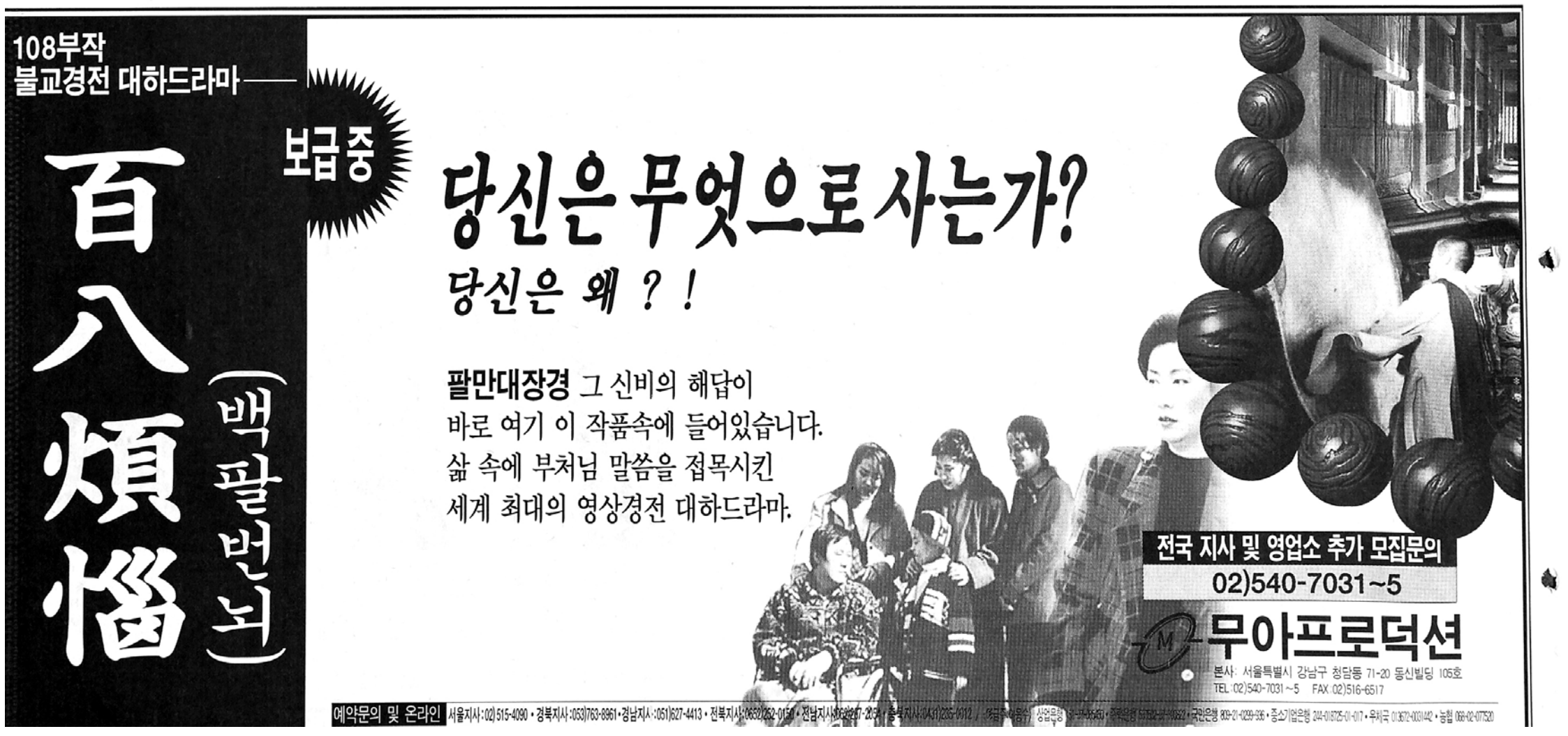
심장병·안면기형·백내장
환자가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사회

작은 정성일지라도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 향기 이웃을 감동시킬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헌혈이나 감로심장회 회원이 내는 회비가 고통속에 쓰러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로심장회와 함께 사회 봉사에 동참합시다
나와 이웃이 삶을 함께 나누는 감로심장회를 통해 사회복지 증진의 꽃을 피웁시다

※ 도움을 기다립니다.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사단법인 감로심장회
T. 0591)749-0106
F. 0591)747-0107



자율경영권 요구 '불씨'

BBS 본사-지방국 불협화음 예견

지방국 광고수입 전용·로컬프로 확대 주장

본 사 1사1법인 원칙 고수…이사증원 불가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BBS지방국이 지난달 20일 대구에서 지방국의 재정자립과 자체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국 광고수입의 전액 지방국 사용,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특수성과 목적성을 살린 자율적인 지방국 운영, 지방국 개국에 사용된 출자액에 비례한(6억당 1인의 이사자격 부여) 이사자격 부여 등을 요구하고 나서 서울 본사와의 불협화음이 우려되고 있다.

BBS 본사는 "불교방송은 종교방송으로써 93년 정보통신부의 지방국 허가 당시 1사1법인을 원칙으로 재단법인 불교방송(이사장 종하스님)의 지국으로만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분리라는 지방국의 요구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불교방송의 '지방국 설립 및 운영규칙(안)'의 제6조 1항에 보면 '재원조달은 본사 지방국 설립준비위원회의 협조하에 설립당해지역의 추진위원회에서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고 명시돼 있어 지방국 개국은 지역사찰과 몇몇 불자들이 주축이된 지방국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성사시켜왔다.

지방국의 이같은 특수한 상황은 방송국 운영에 늘 잡음이 되어왔으나 본사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마침내 지방국의 자율권 요구의 목소리로 나타난 것이다.

3개 지방국 임원진 측은 "1사1법인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해 지방국마다 특성을 살린 자율권을 최대한 주어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대신 본사는 감사제도를 강화해 지방국을 철저히 감사한다면 별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13%의 로컬방송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고, 청취율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광고수익금을 지방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의 경영의 자율권을 확보해 프로그램 제작에 자율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방송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지방국의 재단이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본사의 관계자는 "광고수익금을 둘러싼 문제는 본사와 지방국이 합리적인 분배비율을 조절한다면 적절한 타협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방국 임원진 3인의 이사회 진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불교방송 정관 제5조에 '이사는 21인 이내(이사장, 사장, 상임이사 각1인 포함)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이사의 정원을 더 이상 늘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지방국 이사가 1인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단이사회 차원에서 정관개정등의 큰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재단이사회는 1사1법인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지방국의 이사회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국의 자체제작률을 높이는 문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은 지방국의 위상강화와 지역불교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결국 이번 BBS 본사와 지방국의 마찰은 지난 1월 발생한 경리사고와 맞물려 누적돼온 불교방송의 구조적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국은 재정여건을 이유로 적절한 지방국 관리와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난 경리사고의 발생으로 지방국은 지금까지 돈만 투자하고 제몫은 챙기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문제는 본사와 지방국 서로의 권리와 요구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종교방송인 불교방송에 맞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만이 최선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자 기자



◇탑골공원 앞에 마련한 '자비의 탁발' 특설무대에는 김홍국 김태곤 송춘희씨 등 불자연예인들이 다수 참석,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동포애 일깨우는 자비 물결"

조계종 '탁발행사' 이모저모

○… 3백여명의 스님들과 3천여 불자들이 참여한 '자비의 탁발'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종회의장 설정스님을 선두로 2개조로 나뉘어 조계사에서 종묘공원-탑골공원에 이르는 양쪽거리에서 탁발을 실시했다. 거리에 미리 나와기다리던 신도들은 탁발에 나선 스님들을 합장으로 맞으며 발우에 성금을 넣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함께 탁발에 참여한 승가사와 신낙균 국민회의부총재가 탁발에 참여했을 뿐 여느 행사와는 달리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발길은 뜸했다. 서석재 국회정각회장과 김영수 문체부장관은 측근인사와 김용문종무실장을 보내 금일봉을 전달. 총무원은 행사기획 단계에서 정치권 및 관계 재계인사들에게 초정장을 발송치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며 모금보다는 한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나눔의 정신을 전파하는 데 더 큰 목적을 두었다고 강조.

일반인·사회지도층 인사 발길 적어 아쉬움

서울 모금 4천여만원…북한동포 등에 전달

신도 김순임씨는 "아이들에게 나눔의 귀중함을 가르치는 산교육을 체험케해준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 당초 총무원은 8천여명의 신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아쉬운 표정. 지난 2월 18일 직할교구 주지간담회를 통해 탁발행진 구간을 각 사찰에 할당해 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조계사 구룡사 능인선원 한마음선원 청룡사 외에는 5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 탑골공원 행사장에는 김봉은신부(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의장)

○…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앞에는 화계사 국제선원의 외국인 스님 25명이 탁발에 나서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이날 직지사와 마곡사 선운사 월정사도 이날 영천과 전주 정읍 강릉에서 탁발행사를 실시했으며, 각 교구본사도 4일까지 교구 관할지역에서 탁발행사를 가졌다. 조계종총무원은 이날 서울에서 모금된 4천여만원을 포함 각 교구 모금액 전액을 북한 및 조선족동포, 귀순자, 국내 극빈자를 돕는 일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시 론

고독하지 않은 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의 취임 4주년 대국민 사과담화를 들으며 '그래도 역사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초대 대통령은 망명하고 3공화국 박정희대통령은 부하에게 총격당해 사망하고 5·6공화국을 거친 후 우리는 두 사람의 전직대통령이 자신들의 지난 과오에 대한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은 지금 모두 갇힌 몸이다.

'대통령 사과' 보는 국민

나라나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과오를 범한 사람을 단죄하는 일은 역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므로 국민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날의 국민의식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그들이 대통령이란 '성역(聖域)에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그들이 현직에 몸담고 있을 때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비판했어야 했다. 그들이 현직에 있을때 사과하고 과오를 고치도록해야 옳았을 것이다. 그들이 권좌에서 물러난 뒤에야 벌떼처럼 떠들며 단죄를 시작한 것이 아무래도 모양좋지 않은 것이다.



김 징 자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김대통령의 사과담화는 현직 대통령이 측근 비리와 아들이 뿌린 잡음에 대해 사과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비록 지금이 권력누수가 시작된 마지막 남은 임기 1년전이란 헛점이 있긴해도 그렇다.

이런식으로 발전해 가면 언젠가는 한국국민도 임기를 깨끗하고 정의롭게 마감하는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을 만들어낸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식은 언제나 함수관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해방후 국민의식이 지금만 같았다면 이승만박사를 독재자로 만들지 않았을런지 모른다. 지금만 같았으면 5·16군사쿠데타가 성공했을 것 같지 않다. 당시 국민의식의 총체가 독재자들을 만들었다고 보아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혼란도 민주주의 정착의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남북분단과 6·25전쟁 등 그밖에도 장애요인이 많았음에도 한국민은 문민정부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제 대통령이라 해도 법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그런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그런 시민의식에 눈떠가고 있다. 김대통령의 사과담화도 이같은 시민의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왔을 것이다.

혼란의 시기에 사람들은 곧잘 파천황(破天荒)의 인물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일이 없지 않다. 하지만 파천황의 인물이란 카리스마를 연상시킨다. 민주주의적 사회발전에 과연 카리스마가 필요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만들어 낸다' 말에는 그런 뜻이 포함된다. 발전이 느리더라도 국민의식 성장편을 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망명, 피살, 단죄, 현직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진 현대사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식 발달사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성장기의 아픔이라 할까. 그만한 경험과 역사과정의 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사회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통령의 사과담화문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뽑아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중요한 고비마다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올바른 것인가를 고뇌하며 밤을 지새웠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독하고 어렵고 외롭고 험난한 것이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 말은 대통령이 지난 4년동안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남의 도움을 얻지않고 혼자서 애를 썼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혼자 풀수 없는 나랏일

흔히 '지도자는 고독하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 우리도 그런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 말도 지난 시대에나 어울리는 말일런지 모른다. 무엇을 결정하는데 혼자해서는 안된다. 중대한 결정일수록 그렇다. 많은 사람이 모여 마음을 터놓고 함께 고뇌하며 함께 지혜를 짜내면 보다 좋은 대안이 생길터이고 지도자는 결코 고독하지도 않을 것이다. 김대통령의 고독은 자신의 독단이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는 '고독하지 않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홍신선 〈시인·수원대 국문과 교수〉

반성속에 참나 찾아

마을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30분이 걸린다. 이른 아침의 그 시골길은 오로지 나 혼자만의 것이다. 한기(寒氣)들이 허공가득 뱉아논 겨울 특유의 강기들을 헤치며 걷다보면 정신은 어느덧 투명하게 맑아진다. 마음 구석구석을 둘러 나오듯 걸음을 옮기며 생각을 추스린다. 그렇게 혼자만의 골똘한 생각에 잠기고 또 등언저리에 더운 기운이 돌 만큼 걷다보면 이윽고 마음이 확 풀린다.

학교까지의 이 오롯한 출근길을 나는 사랑한다. 그 길 위에서 때로는 나를 살린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대상화시켜서 되살리고 곰곰 생각하는 것이다. 학교일, 집안의 이런 저런 걱정거리들에서부터 형이상의 삶의 의미까지 되짚어보는 것이다. 아침녘 특유의 찬공기 속에서 나는 혼자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 내가 잘못 했구나'하며 잘못 대하고 겸으로 마음 쓴 일들을 뉘우친다.

또는 가족들에게 자기 증심적인 얕은 계산을 하고 그렇게 처신한 일들을 뉘우친다. 아니, 몇년째 치매에 든 아버지에게 "이제 당신의 때는 갔습니다"라고 혼잣말한 일을 뉘우친다. 작년 가을 교통사고로 먼저 간 아우에게 따뜻한 마음 써주지 못했던 일을 뉘우친다.

자기자신의 기억 골목골목을 이렇게 돌다보면 뉘우칠 일이 꾸역꾸역 쏟아져 나온다. 고목처럼 큰 상수리나무들이 묵연히 내려다 보고 섰는 산길을 벗어나면 마을이 나타난다. 옛빛이 창연한 낡은 집들보다 신흥개발지처럼 갓지은 집들이 더 많은 동네이다. 그 동네 어구에서 나는 마을버스를 탄다. 나를 되살리고 챙기던 시간에서 일상의 잡담으로 몸을 싣는 순간이다.

인간은 자신을 대상화할 줄 아는 능력 때문에 반성이 있고 참회가 가능하다. 반성과 참회 속에 참 '나'를 순간이지만 만난다. 사람에게 이성의 힘이 있어서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일찌기 독일의 포이엘바하의 것이기도 한 것. 그리고 대상화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그 자리에 무한 자비와 사랑이 자리잡는다. 문득 버스는 마음이 지옥임을 지나 톡터진 깨달음의 길로 바꿔들어서고 있다.

생활 속의 불교 (112)

강물은 둑을 만들고 그 둑에 갇혀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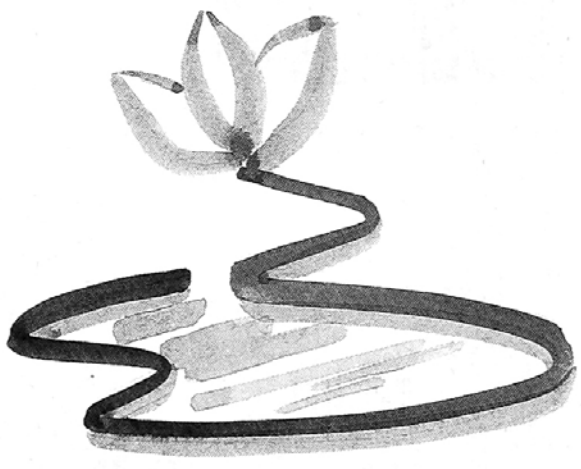
"자기 습은 떼지 않은 채 걸리지 않는 여여한 법 도리만 따지고 있으면 될 일인가. 먼저 자기를 알지도 못한채, 배우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거나 공(空)이겠거니 하고만 있다면 천년 만년을 그렇게 해도 아무 소득이 없다.

세상에 어떤 감옥보다도 무서운 감옥이 바로 관념의 감옥이다. 그 벽은 가장 넘기 어려운 은산철벽이다. 수행이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 벽을 깨는 것.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사실 벽이란 본래 없으나 스스로 벽을 쌓아 올린 것이다. 뜻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지어 놓은 것이다. 고로 본래 벽이 없음을 알려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나무 껍질에 글자를 새겨 놓으면 나무가 크는 대로 글자도 커진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다시 새로운 행위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걸림없는 행이 아닌 한, 마음의 심층에 남겨진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마치 나무에 흠집을 내 놓은것 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런 흔적이 남는지를 잘 알아 채지 못한다. 심한 충격이나 깊은 슬픔, 거듭되는 회한의 경우는 흔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이 맺힌 상태라고 표현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저 흘러가 버린 일로 알게 된다. 그러나 느끼지 못한다고 혹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여리다고 해서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번 일어난 것은 반드시 입력이 되고 입력된 것은 어느 때든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세계는 종 문서로 가득 차있다고 한다. 경전 말씀으로는 '마음에 남은 습기를 원동력으로 하여 온갖 것이 생겨난다.'고 되어 있다.



속담에 '고기 덩이를 먹어 본 개'라는 말이 있다. 한 번 맛을 보고 나니까 자꾸 먹고 싶어 안달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습기의 무서움을 빗댄 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 어느 불면증 환자가 늘 수면제를 복용해오다가 어느 날엔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스르르 잠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서 하는 말이 '하마터면 수면제를 안 먹고 잘뻔 했군.' 했다.

습관이란 그렇듯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습기를 두려워 하는 표현은 다양하다.

'그것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가는 사슬이나 알았을 때는 끊기 어려운 사슬이 된다.' '습기는 내부의 전제 권력자이다.'

'우리는 매일 습관이라는 노끈을 꼬며 살고 있다.' '습기는 노비문서이다.'

신·구·의로 짓는 일이 우리를 구속하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관념의 감옥에 갇힌 꼴이 되고 우리의 삶은 앞 뒤로 은산철벽이 꽉 막아선 형국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대부분은 그런 상태를 갑갑하게 느끼기는 커녕 애지중지 하면서 하루 하루 순간 순간마다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 내 생각 내 느낌 나의 관념을 고수하며 산다. 그것이 되돌아 와 나를 더욱 꽁꽁 묶는 줄을 모르고 산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인 셈이다.

내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오래 쌓이고 쌓인 벽을 허물어야 한다. 마음에 각인된 흔적을 지워야 한다. 그것이 닦음이요 수행이다. 또 나아가서는 일상 생활속에서 더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의 헐떡임을 쉬는것, 놓고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자면 자기를 되비쳐보고 그 짓는 마음의 뿌리를 캐내야 한다.

습기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수행하기가 어렵다면 대신 좋은 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쌓는 일이 그것이다. 경전 말씀엔 나쁜 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외식주 돈 권력 명예 따위를 탐하지 않는 것, 정법을 비방하지 않는 것, 바른 길을 가는 벗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한 번 길이 나면 그 길을 따르기 십상이다. 강물은 강 둑을 만들고 그 강둑을 따라 물이 흐른다.

협찬 : 정 규 상

법회 안내

광림사(02)202-5821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법륜회 매월 1회 낮12시
청각장애인법회 일 오전11시30분
수화교육법회 매주 일 오후3시
보현회법회 매월 1일(음) 오후3시

광륵사(062)222-7801

정기법회 매월 8일(음) 오전10시
좌선법회 매주 금 오후4시
지장경독송법회 넷째 일 오전10시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자비정사(053)793-026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2시

문수사원당불교법회 (0344)966-2544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주부법회 매주 금 오전10시30분
기초교리법회 매주 수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내원정사(051)242-0691

초하루법회 1~4일(음) 오전10시
약사재일 매월 8일(양) 오전10시
인등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대원사(051)403-9695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거사림회 둘째주 일 오후6시30분

월봉사(051)467-8261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달마사(051)514-0212

신장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정진회(대학생) 매주 금 오후6시

영주암(051)754-221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참선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광명사(053)253-0514

국민학생·중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2시30분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8시

벌교포교당(0634)33-281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
군인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 차 로

日 천태종 좌주 영결식 참석



운덕 천태종총무원장은 지난 2월 21일 일본 천태종 좌주 우메야마엔료스님 영결식에 참석차 박형철 참의원장, 국성 총무부장, 도원 교육부장스님과 일본을 방문하고 2월 23일 귀국했다.

'안기부법 심포지엄' 토론



효림 보광사 주지는 지난 2월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 공안정보기구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 백련사 주지 취임



운경 태고종종승연구원장은 지난 2월 25일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 백련사 주지에 취임했다.

'봉은사지' 출판기념 법회



무상 봉은사 주지는 오는 11일 오후7시 봉은사 대웅전에서 〈봉은사지〉(사찰문화연구원刊)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월정사 종회의원 당선



정념 상원사 주지는 지난 2월 23일 실시된 조계종 제4교구(월정사)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 무투표 당선됐다.

청송교도소 재소자 위문



혜철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스님은 지난 2월 20일 청송 제2교도소를 방문, 재소자들에게 식음료 등 1백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산문집 '살아있는…' 펴내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은 최근 90년대 들어 쓴 에세이를 모은 산문집 〈살아있는 광장에 서서〉(신원문화사 刊)를 펴냈다.

동국대 문리대교수 부임



김상현 한국교원대 교수(한국불교사)는 지난 1일자로 동국대 문리대 인문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12년만에 돌아왔다.

'한국 선종사' 강연



최병헌 서울대학교 교수는 오는 3월 10일 오후7시 30분 광명선원에서 '한국 선종사'에 대해 강연한다.

동대 불교대학원 동창회장에



엄원섭씨는 지난 2월 26일 앰버서더호텔에서 5백여 사부대중이 축하하는 가운데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에 취임했다. 엄회장은 불자가정 만들기와 의료봉사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반야사서 교리강좌



정학수 안산불교신도회 상임법사는 오는 5일부터 매주 수, 목요일 반야사(0345-403-3929)에서 기초교리강좌에서 강의한다.

부산불교련 사무국장에 취임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장은 지난 2월 27일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범어사 주지)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맹인복지 대구지부장 피선

이재달 前 대구대광맹인불자회장은 지난 1월 대한맹인복지연합회 대구 광역시지부장으로 피선됐다. 한편 신임 대광맹인불자회장에는 박석규씨가 선임됐다.

한국방송 PD 작품상 수상



황용호 PD KBS한국방송공사는 지난 2일 MBC공개홀서 열린 '제9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시상식' TV부분에서 다큐멘터리 '영상복원 황룡사'로 작품상을 수상했다.

부총장에 정병조교수

동국대 정기인사

동국대 부총장에 정병조교수 불교대학원장에 이영자교수 불교대학장 겸 정각원장에 법산스님이 임명됐다. 지난 2월 24일자로 단행된 동국대 신임 인사는 다음과 같다.

△행정대학원장 이황우 △경영대학원장 김인제 △언론정보대학원장 허천택 △산업기술환경대학원장 김상규 △문과대학장 홍기삼 △이과대학장 성용길 △법과대학장 이순용 △사회과학대학장 이상현 △경상대학장 박강식 △생명자원과학대학장 김경제 △공과대학장 김규석 △정보산업과학대학장 홍영식 △사범대학장 임영정 △예술대학장 조승환 △이부대학장 강태원 △기획조정실장 임기중 △연구교류처장 박거덕 △학생처장 오정수 △중앙도서관장 임호일



◇정병조 부총장



◇이영자 불교대학원장



◇법산 불교대학장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 거리캠페인 425,600원 △정토수련원 수련생 621,000원 △밥 한공기나누기 모금활동 307,500원 △안동일 1,000,000원 △이은숙 1,000,000원 △김운배 1,000,000원 △이종문 900,000원 △정해숙 300,000원 △김민영 100,000원 △방기연 70,000원 △정규석 50,000원 외 8명

〈19일 현재 총 91,614,639원〉

·후원금 접수
(02)3672-5373
·국민은행
818-21-0179-960 〈최석호〉

"수행·봉사 공동수련장소로 활용"

평생불교교육원 설립 김정호씨



"우리는 자연과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로부터 평생교육을 받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얻는 그 가르침과 지혜가 바로 부처님말씀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을 지향하며 20여명의 도반들과 서울 청량리에 평생불교교육원을 설립한 김정호씨(평생불자회 회장, 61)의 말이다.

김씨는 지난 95년 6월 조계사불교대학 졸업자들과 평생불자회를 결성한 이래 불자들이 수행과 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공동수련장 건립을 발원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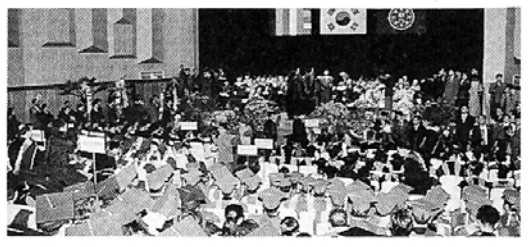
회원들의 꾸준한 참여를 독려하며 2년여동안 〈법화경〉과 불교기초교리강좌을 이끌어 온 김씨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동참금으로 이뤄낸 평생불교교육원은 불자들의 교육장으로써 뿐 아니라 참선 염불 독경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수행까지 도모할 수 있는 실천도량으로 꾸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평생불교교육원에 보다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02)965-9224

도필선 기자



경봉선사 서간집 '삼소굴소식' 출판회

고승 서간집 〈삼소굴소식〉(명정스님 엮음·극락선원刊) 출판기념회가 지난 2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청하 조계종 전계대화상, 설정 조계종종회의장, 녹원 동국대이사장, 고은 시인, 유정현 동아그룹 부사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은시인은 "〈삼소굴소식〉은 경봉선사의 진정한 사리"라고 축사했다.



동국대 96학년도 학위수여식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2월 25일 교내 중강당에서 이사장 녹원스님을 비롯한 내외인사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송석구 총장은 식사를 통해 "참다운 진리의 힘을 신뢰하고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부단한 용맹정진의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새 시대와 새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달라"당부했다.



중앙승가대 제15회 졸업식

중앙승가대학교(총자 지하)는 지난 2월 24일 정진관에서 석주 월주 설정 종하스님을 비롯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주영운 행원문화재단이사장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지하스님은 식사를 통해 수행자의 본분을 준수하고 중생제도에 필요한 선지식이 되도록 하며 정진하는 승가인으로 남아주길 당부했다.



광주불교교육원 문화대학 현판식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지난 2월 22일 상명(광주사암련 회장) 현지(원효사 주지) 선암(화림정사 주지)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이전법회 및 불교문화대학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영조스님은 "3월 개교하는 광주불교문화대학을 여법히 운영, 전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게시판

모집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에서는 오는 11일까지 제25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3개월간 4만원.
(053)474-8228

민해불교대학 신입생=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는 만해불교대학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일정은 오는 11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장소는 부산불교신도회관이다.
(051)862-0082

강좌 불교레크리에이션=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지도자 과정 및 레크리에이션 특강을 실시한다. 강의는 매주 수·금·토 저녁7시30분. 레크리에이션 특강은 매주 월요일 저녁7시 대각사에서 실시된다. (02)720-0207

워드 실기지도=공창사회종합복지관(관장 심산스님)은 워드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기지도를 실시한다. 시간은 매주 월~금 오전10시이며 수강료는 9만원. (051)363-2063

올바른 학습방법=두송종합복지관(관장 지현스님)은 오는 28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복지관내 강당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학습방법' 강좌를 연다.
(051)265-9471

순례 어린이 유적답사=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오는 9일 어린이 유적답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초·중학생 50명이며, 답사지는 경주 서출지, 남산동 쌍탑, 칠불암, 신선암마애보살상, 천룡사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접수마감은 오는 7일까지.
(0561)771-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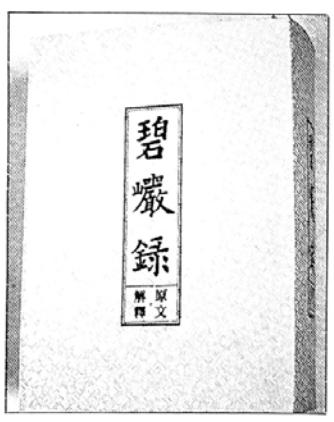
문화기행=두레(회장 김재일)는 오는 9일 두레문화기행 제146차 답사를 실시한다. 답사지는 서울 인왕산지역이며, 출발은 오는 9일 오전9시 지하철 독립문역(3번출구)매표소 앞.
(02)712-5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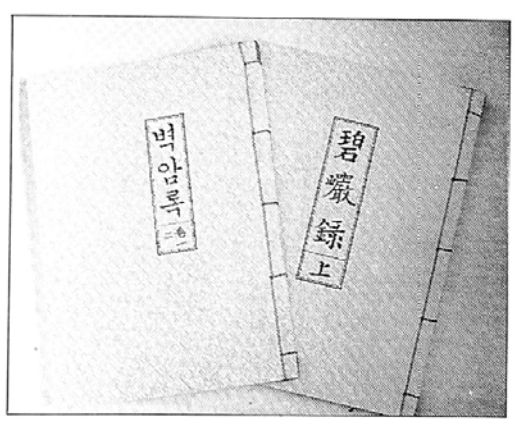
이전 대불련 총동문회(이사장 명호근)는 지난 1일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3-13 성지빌딩 502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23-9811

부음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정태회장의 부친 김갑진씨가 지난 2월 2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영결식은 지난 3일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내에서 있었다.
(051)801-1220

- 禪書의 白眉, 宗門의 寶庫

碧巖錄譯解





碧巖錄

: 중국 宋나라의 원오(圓悟)가 설두(雪竇)선사가 지은 송고집(頌古集)을 評唱한 선수행의 뛰어난 지침서. 10권 碧巖集





열반하신 일우스님이 현토(懸吐)하시고 淨圓스님이 한자, 한획 혼을 기울여 필사와 역해하신 것을 고급 한지에 담아 낸 소장 가치가 높은 벽암록 완결판!

- 본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선에 뜻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原文에는 친절하고 철저하게 토를 달고, 역해에는 번역과 함께 해설을 하여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나 술어 故事들도 따로 색인하지 않고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처리를 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 「벽암록 역해」를 보지 않고 벽암록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벽암록의 이해없이 하는 참선은 마치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것처럼 바른 선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 달마가 불심천자 양무제를 뿌리치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간 까닭을 아십니까?
- 본서와 인연 맺는 분 임제의 「할」소리를 한 번은 들을 수 있고 덕산의 「방망이」한대 쯤은 얻어 맞을 수 있습니다.

● 고급한지, 수제본, 케이스入 ● 정가 330,000원

3월중 출간예정

先주문시 20% 할인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738-6270, 735-7202 팩스 733-1016

"신토불이 문화의식 고양해야죠"

산문밖의 수필

우리문화연구가 이훈종翁



"'신'이 뭔줄 압니까? 민속학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곰이 한 발짝 한 발짝 나무에 오르는 모습이지요. 이처럼 민족문화는 오랜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문화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이훈종翁(80·우리문화연구원 명예원장·前 건국대 국문과교수)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맞춰 묵묵히 살아왔다. 그 과녁이 우리 전통문화 연구와 발굴이다. 60여년을 올곧게 우리것을 규명해 온 그의 삶은 집에 걸려있는 액자의 문구 '與天無極(여천무극·하늘과 더불어 끝간데 없다)' 그대로였다.

"우리것은 우리가 아껴야 합니다. 특히 우리역사와 국문학을 국민모두가 지극한 관심으로 위할 때만이 민족문화가 올곧게 계승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27년전 우리것을 살리기 위해 단청, 옷, 불상과 불구, 농기구종류등 54개 분야를 망라한 〈국학도감〉(일조각刊)을 펴냈다. 우리문화에 대한 애정으로 전국방방곡곡을 샅샅히 뒤지

> "서구사상에 물든 현대인 우리문화 겉만 봐요 조상의 얼·숨결 보면 민족자긍심 절로 느껴요"

댕이등 온갖 잡것들이 섞여있다는 뜻이란다. 그래서 오사리 잡놈하면 소리나 춤등 모든 부분에 능하다는 '다재다능'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 그래서 "조상의 피와 숨결이 담겨있는 축축한 우리땅을 맨발로 밟는 기분으로 알고자 노력해야 우리 것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의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그는 "쌍꺼풀 수술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양식을 먹더라도 총각김치에 밥먹는 기분을 잊지않고 양복을 입더라도 한국민의 심성만은 잊

잘사는 비결 "자기를 믿고 꾸준히 노력하라"
'우리것' 전국탐사 문화사전 '국학도감' 발간

고 확실한 고증끝에 손수 그린 이 국학도감은 그의 땀방울이 스며있는 국내유일의 민족문화 백과사전이기도 하다. 어떤 일이건 민족문화를 살리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신토불이 한국인'의 원형질이라 칭한다.

그는 너무 '우리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중도'라는 화두를 잡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 만큼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정도(正道)에 기반한 그만의 고집이 있다.

"나는 육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육을 하면 아이들 기죽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당치 않습니다. 육에도 깊은 뜻이 담겨있어요"

그는 "우리 육에는 민족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있다"며 "우리 육에는 저주의 말과 악담이 없다"고 말한다. 이를 〈오사리 잡놈〉이라는 책을 통해 낱낱이 설명했다. '오사리 잡놈'만 하더라도 새하얀 살이 배인 좋은 새우만 올라오는 6월에 비해 5월 사리때는 밴지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욕을 부려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선비정신을 기르도록 해야해요."

"선비는 곁눈질 하면 안됩니다. 학덕을 갖추고 어질고 순하며 때가 아니면 벼슬도 재물도 탐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이 선비정신이 일제 35년과 근대화를 이어오며 실종돼 가슴아픕니다."

그는 요즘사회에서도 '미련한 덕은 보아도 약은 덕은 못본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보니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지만 재산은 지키기가 어렵고 죽어서 가지고 갈 수도 없으므로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고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 인생을 잘 사는 비결로 "나는 미련하다. 그러므로 마침표를 찍지않고 계속 노력한다는 자신감과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꼽았다.

"모든 것은 본시 소질이 있어야겠지만 노력만 하면 안되는 것이 없어요. 초등학교 교사시절 책 표지에 글씨 써달라고 교장선생님께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놓고 집에와 생각해보니 내가 글씨를 쓰는 능력이 없는 것이 손이 없는 것과 다를바 없더라고요." 그 길로 교무실글씨 고향편지 뭐든 글씨쓰는 일이라면 연습으로 생각하고 정성들여 썼다. 1년도 안돼 학교행사 등 모든 글씨쓰는 일이 맡겨지고 5년정도 지나니 면사무소 중요글씨뿐만 아니라 비석글씨까지 쓰게 됐다며 웃는다.

이런 여력은 지금도 이어져 어학연구소에서 발간준비중인 〈상용 2천한자〉를 집필하고 있다. "사람들이 꺼벅거리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말하지만 이건 후세교육을 위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전통교육을 세워야한다는 일념으로 한자 한자 유추하며 암기가 쉽도록 글씨를 손수 쓰고 오려붙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남한산성 전통문화사랑모임인 '요철요' 원장으로도 활동하며 매주 토요일 모임을 주재하고 있다.

1938년 경성사범학교 재학시절 조선어연구소에 가입하여 선배들을 따라 방언과 민요를 채집하러 전국을 다닐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회고한다. 해방과 함께 진단학회에 참가했다가 조윤제박사를 만나 우리국어를 되살려 보자는 참가권유를 받고 국어교육연구소를 발기하면서 건국대에 재입학하여 국문학을 공부했다. 건국대 재직할 때 사학과교수였던 운제스님(前 태고종총무원장·원효연구원장)을 만나게 되면서 불교세계가 구체화 됐다고 한다. 어느날 〈금강경〉을 달력 뒷면에 정성들여 사경해 운제스님에게 보였더니 깜짝놀라더라고 한다. 다음날 운제스님이 손에 봉대를 감고와서 '왜그러느냐?'고 물으니 〈금강경〉 사경한 것을 보고 집에 가서 2번을 썼더니 손이 부었다고 해서 서로 한참 웃었다는 일화를 소개한다.

"나무는 위로 올라간 만큼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나 풀은 위만 있지 밑은 부실해요. 이 원리를 터득하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문화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화두를 던진다.

하남=김원우 기자

사람의 영식을 부릴수 있습니까

문 우리는 삼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고차원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영식을 부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저 성경의 기도문에 나오는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김원석·경북 안동시 화성동〉

답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고 나아가서는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발견했을 땐 바로 무심차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그대로 행하면서 악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심차원이니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문 같은 그런 언어가 붙질 않지요. 그냥 둘이 아닌데 수만의 영식이라도 나한테 넣을 수 있고 내가 수만의 영식으로 화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깨달은 분들이 가르치는 뜻은 무슨 차원이 어떻다, 단계가 어떻다 하는 게 아니라 주장자 하나드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어떠냐 하는 식입니다.

달마대사가 주장자 끝에 짚신 한짝 꿰고 또 한 짝은 무덤의 관 속에 놓아둔채 걸어가더라 하는 얘기가 있지요? 그건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둘이 아니게 무심으로 증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차원으로 얘기하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하겠지만 무심도리에서 일체를 둘이 아니게 수용한다면 차원은 뭉뚱그려 한 차원이라해도 됩니다. 아, 삼천대천세계가 한 통속이요 한 마음인데 둘! 한다고 하나가 아니고 넷! 한다고 하나가 아닙니까? 만부처를 불러도 하나요 십만불을 불러도 하나지요.

가령 저 7차원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천국이고 모두가 다 보배다, 천당 지옥이 따로 없으니 어디서 찾으랴 한다면 내 말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구족하면 전부 구족하고 전부 천당이고 전부 보배이며 내 마음 구족하지 못하면 이 세상 구석구석에 온통 시비분별뿐이고 가는 곳마다 원망과 비방과 이해다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도리를 무조건 믿고 따르며 열심히 닦는게 중요하지 차원이 어떠니 영혼이 어떠니 초월자가 어떠니 하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나를 발견하고 둘 아닌 도리를 알게되면 그런 것은 묻지 않아도 절로 풀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인공 당신밖에 할 수 없잖아!' 하라고 했다해서 그게 기독교에서 하는 초월자 얘기와 뭐가 다르냐고 합니다.

내가 보기엔 처음에 기독교에서도, 아니 예수말씀이 원래는 그런게 아닌데 말씀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예수가 '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한 걸로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나를 믿어라 한 그 말은 '각자가 참 나를 믿어라' '하나인 님을 믿어라'한 것이라고 봅니다. 가섭존자가 결집시에 아난존자를 들여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잘못 편집이 될까 보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삐끗 한 마디만 잘못 편집해 놓아도 완전히 망치기 때문이지요.

저 염주에서 알이 하나만 빠져도 주르르 알이 다 흩어지듯이 글자 하나만 잘못되도 뜻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편집을 잘못해서 스스로 증득하는 길로 가게하지 못하고 하나님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진리 그대로 마음을 찾게 했습니다.

그래, 각자의 근본 마음자리를 믿으라는 게 어째서 초월자를 믿으라는 얘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초월자라고 한다면 그건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입니다. 불성을 믿고 불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동시에 두곳에 나툴 수도 있나요

문 어느 책에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도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시간에 여기 있으면서 저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허문숙·경남 통영시 항남동〉

답 요즘은 서울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고 할 때에 부산에 앉아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부산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대구에서도 동시에 보고 전국 어디에서나, 미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헤아릴 수 없이 내가 된다해도 줄지도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하신 것과 같지요?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얘기요 나툼의 얘기입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여러 모습으로 나투셔서 설법을 하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한 생각에, 한 찰나의 일이지 몸뚱이로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그런 위치가 되어야 알 얘기입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원생 과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공부해서 얼른얼른 이 도리의 맛을 보도록 하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치로 따지고 머리로 헤아려서 이 법을 알고자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해서 알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극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주인공에 놓고 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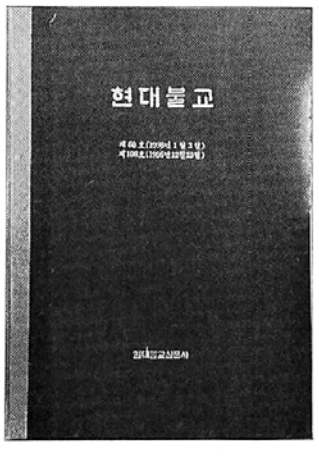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블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 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
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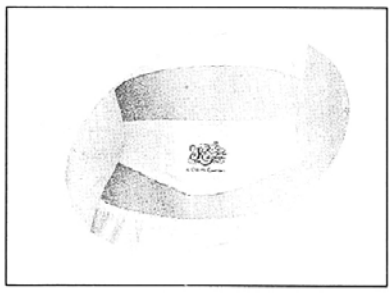
■ 합본집('96년판) : 제60호(1996년. 1 . 3) - 제 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괙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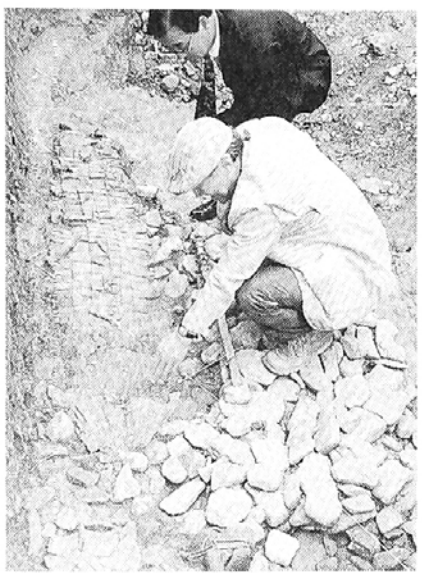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급



◇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현실에 맞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문화유산의 해' 맞아 전문가들 주장

발굴 사전조사·국가비용 부담제 도입 절실

古都 보호법 제정·도굴 등 처벌규정 강화를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제도의 근간이 되는 문화재보호법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의 상당부분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보다 확고한 관계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 외에도 소중한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전승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포함)은 지난 62년 같은 이름의 일본법을 본떠 만든 이후로 96년 1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부분부분 개정돼 왔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아직까지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에만 영향이 미칠 뿐 문화재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개발논리가 앞서는 현대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문화재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우선 개정돼야 할 것으로 꼽히는 것은 모든 곳에서 문화재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공사에 앞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발굴을 할 수 없다는 조항(제44조)을 명시해 놓고도 부득이한 경우 발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둔 현행법규는 유명무실한 법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발굴이나 보존 또는 이전복원 등 일체의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공사 시행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조항(제74조) 역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작업도중 문화재급 유물이 나와도 공사비 추가부담은 물론 공기연장을 우려한 시공자가 아예 신고조차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대규모의 문화재 파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분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지만 그 안을 파헤쳐 물건을 꺼내 신고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한 조항(시행령 제33조)도 수정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발굴기관이 2년이내에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돼 있는 현행조항(시행령 제31조)의 강력한 시행도 필수적인 요소다. 현실적으로 이를 엄격히 지키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경주, 부여 등 역사적인 고도(古都)가 있는 곳에 한해 '고도문화재보호법'의 별도 제정, 문화재의 개념의 구체적 명시, 문화재의 고의적 파괴·도굴·매매·밀반출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 및 법적 시효기간의 강화 등도 반드시 개정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 정비를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법규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해 온 이선복 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는 "현행 문제의 제도·법규가 인력과 예산부족이라는 현실문제와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문화재보호에 많은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허가전 문화재사전조사제 도입, 발굴비용의 국가부담, 매장문화재기금 또는 발굴전문 공공기구 설치 등 관련법규의 개정과 함께 행정절차의 쇄신 및 기구개편 등의 부수적 조치가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과학과 만나는 화엄철학

양형진 교수 석림논총 30집에 기고

가이아 이론 "모든 존재 서로 연결" 연기법 해당

미립자의 생성소멸 '色·空'의 상즉상입 실상

법계가 상즉하고 상입하여 일체의 법이 무애(無碍)하다는 세계관의 화엄철학은 현대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양형진교수(고려대 물리학)는 석림논총 제30집에 기고한 '화엄철학의 현대적 조명과 의의'에서 현대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화엄의 지혜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서구의 신·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은 생물학에서의 진화론에 의해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는 달리 화엄의 세계관은 현대과학적이고 진취적이라는 것이 양교수의 분석이다.

양교수가 예로 든 것은 생명세계와 물질세계에서의 상입(相入·서로 걸림이 없이 융합하는 것)과 상즉(相卽·이것과 저것이 서로 같아져 하나가 됨)의 구조.

지구의 생물권과 대기권, 대양, 토지까지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는 '가이아 이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기법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 법칙'은 천체간의 모든 법칙이 상입의 구조에 해당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유기물에서 생명의 기본 물질이 생성되는 생명체계와, 우주 공간에서 별들이 중력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즉의 구조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양성자와 중성자 내부의 무수한 미립자들이 순간 순간 생성되었다 소멸하는 것은 색이 드러나고 공이 숨었다가 다음 순간 공이 드러나고 색이 숨는 과정의 반복으로 상즉상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해 생명과 물질세계를 하나로 보는 화엄의 세계관은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을 배타적으로 대해 온 서구 세계관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철학이며,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세계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12세기 십우도·화두·명상음악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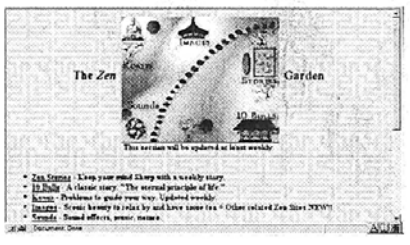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일본의 禪庭

일본불교가 개설한 웹사이트 선정(禪庭, Zen Garden)은 일본과 중국의 십우도, 선사(禪詞), 화두, 그림, 음성 등의 정보를 매주 새롭게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이중에서 십우도가 이 사이트의 백미. 십우도는 미국의 드볼스社에서 1953년 최초로 출판한 이래 중국과 일본의 십우도가 사부대중이 걸어가는 깨달음의 경지를 잘 구현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선정에서 제공한 십우도는 12세기경 중국의 가관스님이 화폭에 담고 그 경계를 설명한 것을 일본의 판화가 도루리키가 목판에 옮기고 P.렙스(美)가 번역해 출판한 〈Zen Flesh〉(앵커刊, 美)에서 발췌했다.

화두는 미우라스님의 〈Zen Koan〉(하버스트刊, 美)에서 매주 새로운 것을 골라 제공한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중국의 14세기 임제종의 스님의 화두인 '황소가 외양간을 등지다'와 같은 고래의 화두를 비롯해 이케이쿠스님이 죽음·어머니·원숭이·국화 등을 주제로 동시대 재가불자에게 띄운 화두가 소개된다.



이외에도 중국·미얀마·태국 등지의 불교성지의 전경을 담은 10여점의 사진을 제공하며 안개·천둥·현음(絃音) 등의 주제로 작곡된 명상음악을 제공한다.

일본의 선정은 'http://www.omius.com/~zenyard/zenyard.htm'을 방문하면 된다.

〈욱〉

法數로 배우는 불교

〈7〉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관념·욕망·집착 깨뜨려야 空門에 들수 있어

소리·냄새등 온갖 현상 인연이 지어낸 가상

이공(二空)

송나라때의 고승중에 자원선사(子元禪師)라는 분이 계셨다. 은주(溫州) 지방에 있는 능인사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몽고군이 쳐들어와 스님을 잡아 놓고 목에 칼을 들이댔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두려움과 절망이 앞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거나 자포자기로 한탄을 하는 법인데 스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는 한편의 시를 읊조렸다.

乾坤孤筇卓無地(건곤고공탁무지)
且喜人空法亦空(차희인공법역공)
珍重大元三尺劍(진중대원삼척검)
電光影裏斬春風(전광영리참춘풍)

지광이 꽂을 땅도 천지간에 없다마는
나와 법이 공하거늘 그 무엇 걱정하리
진기하고 우습도다 원나라의 세치칼이
번개불의 그림자를 봄바람이 베려하네

실로 죽음 앞에서도 한점 미동없이 읊은 이 게송 속에는 대도인의 드높은 기상이 서려있음을 알 수 있다. 게송 속의 '지팡이 하나 꽂을 땅도 천지간에 없다'는 것은 스님의 마음 살림살이를 가리킨다. 아무런 집착도 욕심도 없는 무소유의 마음이 그것이다. 우리네 중생들 마음속엔 온갖 욕망이 꽉차 있다. 보고 듣고 맛본 일체의 인연들을 자신속에 저장한채 굳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인의 마음은 세상의 어떠한 것도 자기것으로 두지 않는다.

이어 '나와 법이 공하거늘 그 무엇 걱정할까'라는 것은 스님의 부동하고도 여여한 깨침의 경지를 가리킨다. 도인이란 일체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다. 도인의 마음속엔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왜냐하면 나다 남이다 하는 것은 모두 분별 망상이 만들어낸 거짓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생들 마음에는 '나'가 있고 또 그 '나'에 의해서 비추어지는 남과 세상이 있다고 여긴다. 자신의 마음과 육신은 물론 이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산하대지와 일월성신 그리고 모든 삶의 현상들을 실제로 여긴다는 말이다. 이것을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온 어리석은 관단에서 기인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그릇됨을 스스로 시인하고 두가지 잘못에서 벗어나면 나와 세상이 함께 '공(空)'하여 잠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공(空)이란 '실제하지 않음(非有)' '존재하는 것 같지만 거짓현상(假有)'이라는 뜻으로 자아가 공한 것을 아공(我空 혹은 人空), 남과 대상이 공한 것을 법공(法空)이라고 하며 이 둘을 합쳐 이공(二空)이라고 한다.

〈반야심경〉에 無안·이·비·설·신·의, 無색·성·향·미·촉·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 안이비설신의는 아공의 이치를 밝힌 것이고 무 색성향미촉법은 법공의 이치를 밝힌 것이다. 눈·귀·코·혀·몸·의식으로 이루어진 자기라는 것은 본래부터 허망된 인연기운의 모습이므로 있는 것 같지만 허상이요, 이로부터 부딪히는 물질·소리·냄새·맛·감각·대상의 온갖 법 또한 인연기운으로 일어난 가상이다. 그러니 여기에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이 다시 달라붙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목숨을 번개불 그림자에 비유하여 아공의 도리를 밝히고 내려치는 칼날을 봄바람에 비유하여 법공의 도리를 밝힌 스님의 게송은 불법의 궁극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주는 상승의 법문이라 할 수 있다.



◇석정스님作

예로부터 불문(佛門)을 공문(空門)이라고 했다. 공의 체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시(無始) 이래로 지어왔던 고정된 관념, 대상을 향한 욕망, 자신에 대한 집착 등을 철저히 깨뜨려 반야지혜를 드러낼 때 체험되는 것이다. 한마음이 공해지면 아공 법공이 모두 성취되는 것이니 자신의 마음부터 살펴볼 일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경력직 간부사원 모집

불교방송과 함께 꿈을 펼칠 중견 간부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경력사원	국·부국장급	0명	· 기획관리(행정), 재무관리, 방송사업분야 업무경력 5년이상자 · 정보시스템관리 유경험자 · 대졸이상자로서 일반행정, 재무관리분야 전공자 · 연령 45세 - 50세(남자) · 종교: 불교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3차 : 신체검사(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연락처 기재) 1부
나. 자기소개서(경력사항 상세히 기록) 1부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4. 서류접수
가. 기간 : 1997.3. 3. (월) - 3. 12(수)
나. 접수처: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불교방송 관리국 총무부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래사 또는 우편접수

5. 기 타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나. 문의처 : 불교방송 관리국 총무부 (02)705-5222,5224

불교방송 FM101.9 MHz
BBS Broadcasting System
대표전화 : (02)705-5114 · FAX:(02)705-5229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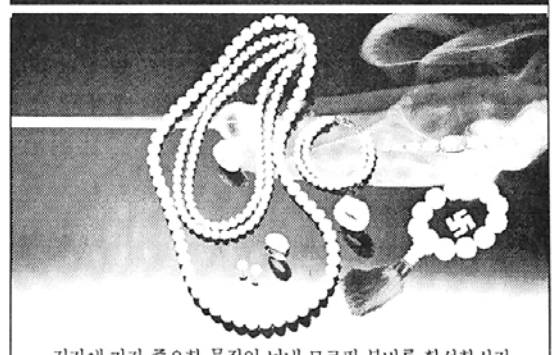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추가 및 편입생 모집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2월 17일 ~ 3월 17일
■ 개강일시 : 1997년 3월 17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선법사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단전호흡 효과)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찹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 장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잡히 잡니다. (조금의 차가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 매트의 효능은 옥심대원 대신합니다.
*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조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전시회참석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사 本草綱目에 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절기는 참으로 어김없다. 우수가 지난 2월 23일, 서울서 5시간여를 남녘으로 달려간 영축산 통도사는 봄기운이 무럭 느껴졌다. 현대불교신문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개최하는 '불교문화 테마여행'의 첫 행사. 오후 1시 통도사 보궁에 도착한 참가자 130명은 대웅전에서 열심히 절하거나 좌정 기도부터 했다. 문화재위원이며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인 범하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의 '가람배치로 본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한 강의를 잘 듣기 위한 '마음재계'인 듯하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2월-통도사

"가람배치로 본 자연과 인간의 조화"



◇통도사는 계율근본도량으로 삼국통일의 이념을 제공한 가람이다. 테마여행단은 신라때 조성된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독특한 가람배치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룬 통도사에 대해 범하스님으로부터 현장 강의를 들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영축산 '無佛설법' 봄도량에 가득

불사리 안치 금강계단 계율도량 위용
130여 참가자 봉발탑서 미륵세계 염원

"통도사는 '불지종가 국지대찰(佛之宗家 國之大刹)'이라 합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문수보살 현몽으로 부처님 진신사리와 친착하셨던 금란가사를 우리나라로 처음 가져와 봉도사를 지어 모신 불보(佛寶)사찰이자 한국 최대 규모의 사찰이라는 뜻입니다. 불교를 알기위해 가장 먼저 참배할 도량입니다만, 불교문화유산이기 이전에 바로 우리 조상들이 짓고 생활한 전통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대웅전(국보 290호)에서 범하스님의 강의가 시작됐다. 스님은 통도사의 창건정신, 역사와 유물, 가람배치 그리고 이시대 우리가 찾고 가꾸어야 할 점 등을 낱낱이 설명했다.

이어 현장 강의. 전체 가람배치의 중심인 금강계단에서부터 일주문에 이르기까지 3개 지역으로 위계가 설정된 배치에 따라 상로전(上爐殿) 중로전 하로전 지역의 건물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통도사의 정신적 근거이기도한 금강계단에서 석종부도를 향해 참가자들은 환희심이 가득하여 수없이 절한다. 통도사를 끝까지 호지하겠다는 눈먼 용이 산다는 구룡지(九龍池), 응진전, 명부전, 삼성각, 산신각, 일로향각이 들어선 상로전 지역을 둘러보면 곧바로 용화전 앞의 석조 봉발탑(石鉢塔,보물 471호)이 눈길을 잡는다. 여기부터는 중로전 건물이 들어섰다. 용화전 대광명전 관음전 개산조당 해장조각 전향각 장경각 세존비각 황화각 영각 불이문이 있다. 80분의 조사를 봉안한 영각, 대들보가 없이 코끼리와 호랑이 조각의 부재로 서까래를 받치도록한 불이문을 통과해 나오면 하로전 건물들이 맞이한다. 영산전 극락보전 약사전 만세루 범종각 천왕문 일주문이다.

경내를 빠져나와 신축중인 박물관 맞은편 좁은계단으로 길이놓인 동산(사자봉)을 오르면 5층석탑이 나타난다. 이곳에 서면 영축산 줄기로부터 이어지는 통도사의 가람배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영축산 산세가 정상에서 마지막으로 맺힌다는 이곳은 통도사에서는 가장 명당으로 알려져 비보(秘寶)스러운 신년 되찾아 3층석탑을 세우고 봉안했다. 사리탑의 사리공과 옥개석은 옛날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 복원됐다.

통도사를 찾으면 가장 먼저 부도군을 만나 선대 스님들에게 인사하게 된다. 여관촌을 정화해 사중에 흩어져 있던 부도 56구와 비석을 한자리에 모았다. 참배와 관리를 제대로 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조 석조 유물과 금석문을 연구할 수 있는 노천박물관인 셈이다.

"불교문화 테마여행은 문화유산의 해 제정 취지에도 잘맞는 좋은기획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나아만 비로소 좋다는 것도 알 수있기 때문이지요." 범하스님의 평가다.

배진영씨(25, 서울 장위동)는 "절을 다녀도 그 절과 문화유산이 지닌 의미와 역사성을 알지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번 행사에 참가해 보니 통도사에 대해 확연히 알게됐다"며 기뻐했다.

친정부모 남편 남동생 여동생 자녀2명 조카2명 등 온가족 10명이 참가한 박난숙씨(42·기업은행 근무)는 "종교는 갖고있지 않지만 애들 교육에 좋을 것 같아 함께 왔는데, 어른들도 모두 공부가 됐다"며 다음달 행사에도 꼭 가고싶다고 밝혔다.

장석태씨(48·서울 등촌동)는 "종교는 없지만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기위해 참가했다"며, 아들 지호군(16·등원중 3년)이 유익하게 배워 더욱 잘왔다 싶다고 말했다.

오후 3시30분, 참가자들은 1천3백여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영축산 통도사를 확연히 만난 보람을 안고 서울로 향했다.

양산=위영란 기자

후원:'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



◇용화전 앞의 봉발탑(높이 230㎝). 가섭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우와 가사를 미륵불에게 바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경전내용을 상징하고 있다.

전문가 안내

범하 스님 (통도사 박물관장·문화재위원)

영축총림 통도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골사리와 친히 수하셨던 금란가사가 봉안돼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3보사찰(三寶寺刹) 가운데 가장 으뜸인 불보(佛寶)사찰이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15년(646)에 도의국사로 부터 부처님 계맥을 이은 자장율사가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쌓아 세운 통도사는 당시 어지러웠던 신라불교계를 정화하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힘이 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대웅전 뒤에 사리탑 만을 모신 것이 아니라 계단을 설치해서 계율사상에 근거한 사회질서를 통해 삼국통일의 정신적 기반으로 일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도사의 역사는 계율근본도량으로 금강계단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통도사(通度寺)의 절이름과 사격을 살피면 창건정신과 역사성을 알 수있다. 출가수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곳 금강계단에서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하고, 모든 진리를 회통하여 일체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통도사가 위치한 산세가 부처님 재세시 설법하시던 인도 영축산의 모습과 통한다는 뜻도 있다.

신라 '無佛시대' 가람구조
금강계단 중심 동서방향 주축
上·中·下爐殿 삼분배치 조화



◇금강계단 사리탑.

통도사의 가람배치는 신라때 조성된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매우 특이하다. 부처님을 법당의 주불로 모시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 열반이후 6백년까지 보였던 '무불(無佛)시대'의 대표적인 구조이다. 무불시대에는 부처님 봉안 대신 사리를 탑에 모셔 예배한 사리신앙이 성행했다. 이처럼 통도사는 계단을 정점으로 산과 사리탑이 중심이되는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신라사찰은 남북 향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반면 통도사는 금강계단서부터 동쪽방향으로 붙이문 천왕문 일주문 등이 이어지는 동서 향으로 배치됐다. 이처럼 통도사는 대웅전에서 일주문까지 동서 향이 주축이지만, 이 주축에 직교하는 남북 향의 부축(副軸)이 3개나 있는 가람구조이다.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잇는 부축, 대명공전과 용화전 관음전을 지나는 부축, 영산전과 만세루가 이어지는 부축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부축에 의해 나뉘어지는 외적 공간은 서쪽으로부터 일주문 방향의 동쪽으로 상(上) 중(中) 하(下)의 위계가 설정되어, 상로전(上爐殿) 지역 중로전 지역 하로전 지역으로 나눌 수있다. 또 상중하 로전의 구역과 구역 사이에는 적당한 크기의 중정(中庭)을 두어 외부 공간과 건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국내 유일한 건축양식으로 국보 제290호로 지정된 대웅전은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임란때 소실된 것을 인조22년(1644) 우은대사에 의해 중건됐다. 따라서 기단과 돌계단은 창건당시인 신라때 것으로 추정되며 문양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건물구조 형식을 보면 다포식 외3출 내4출목의 7포작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의 복합형인 T자형으로 동서남북 사방 어디서 봐도 정면과 같이 보인다. 대웅전에는 건물 4면에 편액을 걸었는데, 대웅전의 동쪽이 '대웅전' 서쪽이 '대방광전' 남쪽이 '금강계단' 북쪽이 '적멸보궁'이라 했다.

통도사의 자랑거리의 하나는 국내 유일한 사찰박물관이 있다는 것이다. 87년 80평으로 설립된 것을 현재 증축하고있다. 98년 부처님오신날 개관을 목표로 공사중인 성보박물관은 1천3백평 대지에 4백80평으로 들어설 전시관에 국보 1점 보물 11점 자방문화재 34점을 비롯 1만여점의 유물이 전시될 예정이다. 통도사는 현재 16개의 산내 암자와 118개의 말사가 있다.

황토와 약쑥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당기와 황토좌대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체 조직과의 없이 피공(皮孔)에 가장 효율적으로 접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

가정용 **전통 황토 쑥 좌욕기**

⊙ 전통 황토·쑥좌욕기는 좌욕기능외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좌욕효능 〈2〉 미용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병질환 및 면비, 처질 해군살등
● 남성의 정력선 질환 및 정력강화 반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등
〈Ⅱ 30분 30분 좌욕을 하십시오〉

● 얼굴피부속 노폐물제거피부가 뽀얗게 됨
● 피부노화방지 회복 재생
● 피부미력유지 윤택뛰어난 피부 멋시지 효과
● 기미 여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관도선 천식 계질환 두통염등
〈Ⅲ분~0분 얼굴피부몸질을 하십시오〉



〈황토로 만든 도자기 최대〉
- 실용신안등록번 제96-2002호
- 의장등록출원 제96-30068호

● 규격 : 높이 25cm×직경 30cm
● 전기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전자파를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 성화약쑥 300g분 + 황토가루 100g분 포함
● 좌욕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심대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보급가 전통 황토·쑥 좌욕기 : ₩ 270,000
침 대 (별도선택사양) : ₩ 90,000

⊙ 전통 황토·쑥좌목기를 사용시 질병치료에 탁월한 치유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 「동의보감 탕액편권」, 「본초강목」 「향약집성방」 「신해경」 등의 옛의서에 황토와 약쑥의 탁월한 질병치료 작용과 효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씌여있는 기록과 단군이래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황토와 약쑥을 이용하여 온갖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만간요법을 근거한 것으로 황토와 약쑥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 황토가루와 약쑥을 염분소금과 함께 절절 끓여서 황토좌대 안에 넣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아픈부위를 집중적으로 찜면 아래와 같은 질병치료에 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뜨거운 증기 찜질효능 (각 질환 부위별 처방법법 아픈곳을 해당위 구멍에 대고 찜질)



①(허리통증, 척추질환 디스크)
②(어깨, 목 디스크, 통증, 근육 결림, 골반통, 당뇨의 질환)
③(혈산경통 마비, 사약중독 회복 능력보, 근육통, 타박상)
④(다리, 무릎, 관절염, 산경통)
⑤(복부냉증, 간기능질환)
⑥(모든 발병의 뿌리, 습진, 피부각질, 수족냉증질환)

※ 체험치료사례모음 : 본제품을 사용하시어 효과를 보신분들께서는 본회로 치료사례를 보내주시면 1년분 약쑥과 황토가루를 보내드립니다.(주소, 성명, 전화번화, 질병종류, 치료기간 기록)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자매품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돈만을 쓸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혼자서 간단히 혼자서 1군데 혹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1군데 혹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회장 혜천)
부설 : 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서울(02) 강남 : 553-0201~2 송 파 : 417-8922 경기지역 : 평택 : (0333)656-6856 군포 : (0347)66-0049
강북 : 902-2430 중 로 : 747-7033 용인 : (0335)56-4294 과천 : (02)503-9352
성북 : 942-6430 영등포 : 782-6080 부산(051) : 부산진구 : 803-0108 연제구 : 864-2900
반포 : 597-7581 구로 : 금천 864-0199 해운대구 : 702-2621
대구(053) 남구 : 474-2828 달서구 : 635-9734 경남지역 마산 : (0551)23-9016 울산 : (052)274-7536 광주(062) 동구 : 228-8544 충남지역 공주 : (04103)856-6856 충북지역 청 주 : (043)273-2684
대전(042) 중구 : 222-4936 서 구 : 554-4211 김해 : (0525)24-4871 울산중구 : (052)295-1973 서구 : 523-1540 예산 : (0458)33-5208 제 천 : (0443)46-3023
동구 : 253-6446 둔 산 : 487-7245 진주 : (0591)43-4655 울주군 : (052)285-1284 강원도 강릉 : (0391)645-2117 서산 : (0455)63-0457
경북지역 포항 : (0562)82-3355~6 아산 : (0418)43-3510 제주도(064) 제주시 : 22-3524
안동 : (0571)53-0229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무상품(無常品) ②

雖壽百歲 수수백세
亦死過去 역사과거
爲老所厭 위노소염
病條至瘵 병조지제

비록 백세를 산다해도
죽고나면 그뿐 지난 일인데
늙는 것도 싫은 일이거든
병까지 때맞춰 다가드네

是日已過 시일이과
命則隨減 명칙수감
如小水魚 여소수어
斯有何樂 사유하락

오늘 하루해 지나가면
명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
마치 고인 물에 갇힌 고기꼴이라
거기 무슨 즐거움 있다하랴

老色陋衰 노즉색쇠
所病自壞 소병자괴
形敗爛朽 형패부후

亦非父兄 역비부형
爲死所迫 위사소백
無親可怙 무친가호

자식이라 믿을게 못되고
부모 형제도 믿을것 없네
죽음이 바짝 좇아 올때는
피붙이도 믿을 수 없다네

晝夜慢惰 주야만타
老不止姪 노불지음
有財不施 유재불시
不受佛言 불수불언
有此四弊 유차사폐
爲自侵欺 위자침기

밤 낮으로 마냥 게으름피고
늙도록 음행 그치지 않고
재물 있으나 베풀지 않으며
부처님 말씀 받들지 않으니
이 네가지 작폐야 말로
저를 해치고 속이는 짓일뿐

非空非海中 비공비해중
非入山石間 비입산석간

"게으름피고 음행하고 베풀지 않으며 佛法 받들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일"

命終自然 명종자연

늙으면 형색이 스러지고
병들어 스스로 무너지며
몸은 망가져 썩어지나니
그렇듯 목숨마침은 자연스러운 것

是身可用 시신하용
恒羅臭處 항루취처
爲病所困 위병소곤
有老死患 유노사환

내 몸이라 무슨 소용있으랴
언제나 피 고름 새어나는 곳
항상 병들어 시달림 받고
늙음과 죽음과 근심 서린 곳

嗜欲自恣 기욕자자
非去是增 비법시증
不見慙愧 불견문변
壽命無常 수명무상

즐기고 싶은대로 다 즐기어
법답지 않은 짓만 늘려가니
변하는 이치 듣도 보도 못했던가
목숨이란 끝내 덧없는 것을

非有子恃 비유자시

無有地方所 무유지방소
脫之不受死 탈지불수사

허공도 아니요 바다속도 아니고
깊은 산도 바위틈도 아니니
어디에도 숨을 곳 없어라
죽음 모면하고 받지 않을 곳이란

是務是吾作 시무시오작
當作令致是 당작령치시
人爲此勝援 인위차조요
覩逢老死憂 리천노사우

힘써야지, 내가해야지,
마땅히 내가 마칠 일이지
사람마다 이렇게 조급해 하지만
늙어 죽을 걱정은 그대로 밥고가네

知此能自淨 지차능자정
如是見生盡 여시견생진
比丘厭離兵 비구염마병
從生死得度 종생사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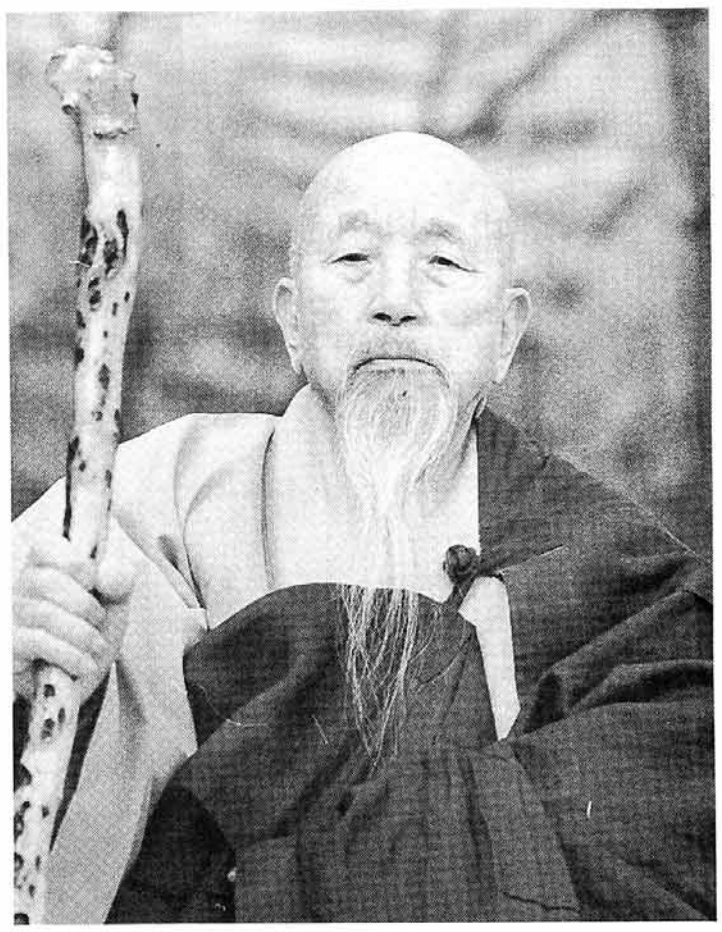
이렇듯 덧없음을 알아 스스로 맑히고
이같은 생의 마침을 바로보아
비구는 마구니를 싫어하나니
나고 죽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착하게 사는 재가의 삶

비룡스님 〈월정사 조실〉



"자기본심 몰라 미혹에 싸여 있지만 삼학닦으면 본성 볼 수 있어요"

나는 1927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방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처음 22살때 강원도 인제에서 한암스님의 법문을 듣고 느낀 바가 많아서 편지를 올렸지요. 얼마 후 스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오대산에 와서 공부하라는 말씀이셨지요. 그길로 스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 나는 도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도교책을 보여드리자 스님은 "나는 그런 것은 모른다"시며 '옴마니반메훔' 6자진언을 일러주셨습니다.

1901년 개성 양반집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청년시절 도교 천도교 예수교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예수교를 믿었는데 믿다가 보니 천당간다는 말밖에 없어 도교를 찾게 되었지요. 강화도, 구월산, 설악산 등지에서 도교수행도 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공부를 하던중 한암스님을 뵙고 불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도 닦는 공부하는데 부처님 법 이외는 소용이 없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도교는 죽지 않고 오래사는 것이 목적이지만 불교는 생사를 벗어나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도(道)란 것을 알게 됐지요.

하지만 출가의 구체적인 원인은 '도'에 대한 관심도 있었겠지만 당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일제를 물아내기 위해 신통력(神通力)을 얻겠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머리를 깎기 전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심부름도 했지요. 말하자면 신통력을 얻어 독립을 이루려는 한 생각이 절집 인연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인지 출가는 한암스님을 뵌지 몇년 뒤에 하게 됐습니다. 당시 오대산에 가보니 스님들 사는 모습이 엉망이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스님에게 하대(下待)하는 시대적 풍토도 한몫 했지요. 그래서 출가는 하지 않고 처사로 있으면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부목생활 공양주 등 허드렛일을 하면서 신심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탄허스님으로부터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금강경〉을 공부하던 중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라는 구절을 접하고서 출가를 발심하게 되었지요. "무릇 모든 사물은 무상한 것이다. 만약 모든 사물이 진실이 아님을 본다면 여래를 보리라"는 이 4구게(四句偈)로 온갖 상(相)을 깨치고 본성을 보리라 마음먹었지요.

한암스님은 늘 "공부라는 것을 일념으로 생각하되 계(戒)를 지켜야 한다. 계를 지켜야 정(定)을 닦을 수 있고 정을 닦아야 선정(禪定)에 들 수 있다. 선정에 들어야 생사를 뛰어넘어 해탈자재(解脫自在)할 수 있다" 하셨어요. 또 계를 지키기 위해 돈과 색(色)을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제자나 스님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공부해라. 중이 공부 안하면 큰 죄를 짓는다" 하신 스님은 "공부하지 않으면 쌀 한톨이라도 먹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끓는 쇳물을 마

약력
- 1901년 개성 生
- 1927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 금강산 마하연, 상원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수행
- 1955년 한라산 천왕사 창건
- 現 월정사, 천왕사 조실
- 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계를 속박으로 생각하지만 계를 지켜 童心으로 돌아가면 분별심 끊고 삼매에 들 수 있어요"

실지언정 시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게 스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셨지요.

이런 가르침을 스님 당신께서는 항상 생활화 하셨습니다. 한번은 목포에서 윤청용스님이 대중공양 거리를 가져왔는데 오는 이틀동안 음식이 쉬어 못먹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쉬어서 못먹는다고 했지만 스님은 신도의 정성을 생각해 버려서는 안된다며 볶아서 먹도록 했지요. 결국 스님의 정성 때문인지 모두들 쉰 음식을 먹고도 아무 탈이 없었어요. 깨달음은 사소한 일에 정성을 다하고 계를 지키는 가운데 오는 것임을 확인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한암스님의 청빈한 수행태도는 내가 오랫동안 생식(生食)을 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솔잎을 갈아서 먹는 생식은 몸과 마음을 아주 가볍게 해 음심(淫心)이나 탐욕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실천궁행(實踐躬行)하시는 스님의 자연스런 가르침은 나의 공부에 큰 좌표가 되었습니다. 상원사에서는 행자생활을 하면서도 입승을 보았는데 80명분의 공양을 지으면서 한번도 대중앞에 불려가지 않을 정도로 소임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일본군이 유기그릇을 방출하라면서 절살림을 뺏어갈 때도 불기(佛器) 재기(齋器) 등 2천여점을 다락방에 숨겨 화를 모면한 적이 있었어요.

한암스님의 엄격한 가르침은 금강산 마하연에서 한 3년 용맹정진에 들어갔을 때도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하연에는 50여명의 수좌가 정진했는데 그 중에는 동산 서암스님이 있었습니다. 마하연에서 3년 정진 후 한암스님이 부르시기에 상원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다른 스님들이 살고 있어 상원사에서는 공부를 못하고 오대산 중대, 태백산 정암사, 동암 불영사 등지를 돌며 수행했습니다. 그 뒤에는 백양사, 갑사, 해남 대흥사, 보길도 등지로 다니며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제주도에 천왕사도 짓고 오대산 월정사 책임도 맡게 되었지요.

6.25 때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거찰리 병풍도에서 지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근해에서 어업을 하던 목포사람들이 한밤중에 뛰쳐들어와 이북사람이 목포까지 내려왔다고 숨겨달라고 해서 전쟁이 난 걸 알았지요. 그렇게 속세와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정통에 한암스님의 입적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전쟁 와중에도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전국을 돌며 수행중에 있었기에 은사스님의 입적소식을 뒤에 접하게 된 겁니다.

돌이켜보면 한암스님은 언제든지 계(戒)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계를 지켜야

부처님오신날 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 서울 · 수도권지역 현수막 설치하여 드립니다. (설치비 별도)
— 초파일 15일전부터 10일전까지 설치(미리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
■ 90cm×5m 현수막도 있습니다 (35,000원)

귀의 삼보하옵고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오신날에 전국 각 사 · 암 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본 감로기획에서는 현대감각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옥외설치용 장엄물로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불교위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 단청디자인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봉 부처님오신날 축 —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 대한불교 조계종 ○○사
■크기/90cm×6m ■가격/40,000원

봉 부처님오신날 축 —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 ○○사
■크기/90cm×8m ■가격/50,000원

봉 부처님오신날 축 —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 ○○사
■크기/90cm×10m ■가격/60,000원

❖ 부처님오신날 봉축 리본 수동식 100개 25,000원 / 기계식 100개 40,000원

❖ 부처님오신날 봉축 어깨띠(1장 2,500원) 100장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 드립니다.

부처님과 함께 하는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02)738-8682

■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1997학년도 제6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교육 · 법사교육,
법사를 양성하는 도량,
한국불교법사대학!
선교방편으로 포교하는 법사(法師)

체계적인 불교공부로
믿음을 성취하고
인격적 신행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무량광대한 법사의 길을
한국불교법사대학 도량에서
함께 열어 갑시다!!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7년 3월 10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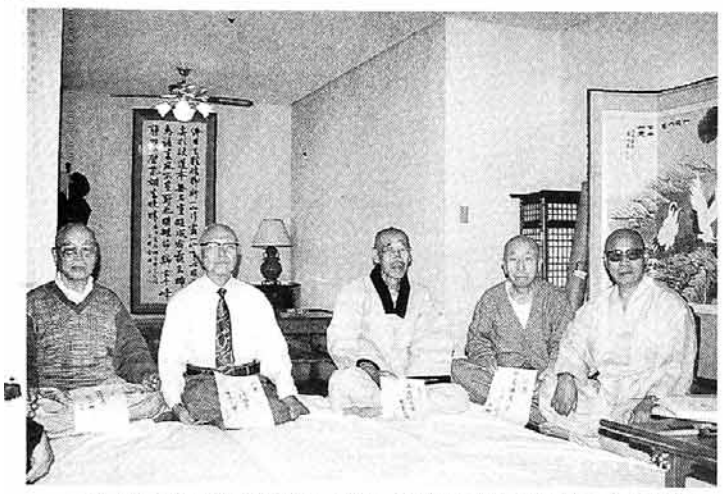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 시행)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

큰 스님 수행한담

바로 계 지키는 수행”

“출가승 공부 안하면 큰 죄”
한암스님 가르침 평생 수행좌표



◇지난 91년 팔공산 파계사에서 고송스님(파계사 조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왼쪽부터 고송스님, 동화사 비로암 용명스님, 문경 봉암사 조실 범룡스님, 비룡스님, 옥천 세심원장 무변스님.

8만진언·1천7백 공안 모두 둘아닌 하나
“마음만 밝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란 7불통계게(七佛通戒偈)가 공연한 말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교는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계를 지켜 마음이 밝아질 때에 비로소 참선·기도·염불·주력 등 온갖 수행방편이 효험을 발휘합니다. 8만4천가지 수행방편에 속하는 8만가지 진언과 1천7백가지 공안(公案), 20여가지 관법 등이 둘이 아닙니다. 깨침의 도는 하나일 뿐 근기에 따라 수행방편을 선택할 뿐입니다.

결국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자세와 정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과학과 철학도 일념(一念)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됩니다. 마음만 밝으면 과학·철학도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발견은 지식으로 되지만 큰 발견은 마음이 밝아져야 이뤄지는 것이 참선의 원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깨닫기 전에는 근기의 차이가 있지만 깨닫고 난 후에는 역시 둘이 아닙니다. 물론 깨달음에도 신통(神通)이 있고 없고, 본래면목을 얼마나 아는가 하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만….

나는 주로 참선정진을 하였습니다. 화두는 한암스님이 내리신 ‘무(無)’자 화두를 들었지요. 수행자들이 화두를 어렵게 느끼지만 화두는 ‘의심하는 것’ 이외에 딴 게 아닙니다. 내 사형 보문(1906~1956)스님은 단 1주일만에 깨쳤습니다. 그만큼 분별심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린아이 처럼 순진무구한 마음상태가 중요하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심이 되어야만 선정삼매에 들 수 있고, 선정에 들 수 있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염불삼매도 마찬가지이죠. 동심에 들어 모든 탐욕과 색욕을 끊고 선정에 들 수 있다면 몇달, 아니 수십·수백년을 먹지 않고도 지낼 수 있어요.

이런 수행이 쌓이던 나중에는 자신의 법신(法身)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밝은 달밤에 자신의 그림자를 달빛에 비추어 볼 때, 그림자가 검으면 아직 욕심이 많은 것이며, 희색에서 흰색으로 변할수록 보살심이 발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불교에는 참선이나 염불 진언 등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모두 같은 길입니다. 대개는 상근기가 화두를 들고, 근기가 조금 모자라면 관법(觀法; 위빠사나)을 행하고 근기가 더 약하면 진언이나 염불을 해요.

이중 진언이나 염불은 성인의 힘으로 깨치는 겁니다. 또 근기가 약한 사람이 무자 화두를 들면 망상이 많아져요. 젖먹던 시절까지 생각이 날 정도로 망상이 끝이 없지요. 그러니 개인의 체질에 맞는 방법을 택해 정진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종착점은 같으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불보살의 나라가 됩니다. 서양인들도 다투어 불교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원효스님 포대화상 달마스님 한산스님 습득거사 등 선정에 들어계신 고승들이 다시 이 세계에 몸을 나투실 것입니다. 수명도 160~170세로 늘어나고 신장도 커집니다. 착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세계가 옵니다. 그런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살면서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국가와 민족, 세계가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2년전 제주도 현왕사에서 100일간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이를 준비하자는 의미에서죠. 수년안에 통일이 될 것이니, 남한에서는 식량을 많이 준비해 둬야 할 겁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도기로서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모든 불자들이 마음을 모은다면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정치는 인과(因果)를 아는 황희정승 같은 분이 해야 합니다. 녹을 먹을 때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고 벼슬을 떠나서는 농사를 지어먹으며 청빈하게 사신 분, 그런 분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

“정치하는 사람은 인과를 알아야 합니다
봉사정신으로 사리사욕 채우지 말고
권세위해 남 속이는 일 하지 말아야지요”

정(定)에 들 수 있고, 정에 들어야 혜(慧)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부처님께서도 “계로써 스승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아요. 계·정·혜 삼학을 함께 닦는 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 온 오랜 전통인데, 계가 그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가(禪家)에서 선정의 힘으로 앉아 죽고 서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이같은 수행이 쌓이면 쉬운 일이지요. 반면 스님들이 계를 제대로 못지키면 열반에 들 때 고생하게 됩니다.

결국 착하게 살면서 계·정·혜를 바로 닦으면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 등 4상(四相)과 탐(貪)·진(瞋)·치(癡) 3독(三毒)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본심을 므르기에 미혹(4상과 3독)에 싸여 있지만 3학을 닦으면 본성을 보고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계를 속박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몰라서 그런 겁니다. 계를 지켜야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질 수 있고, 동심으로 돌아가야 온갖 분별심을 끊을 수 있어요. 분별심을 끊고 일념(一念)이어야 선정삼매(禪定三昧)든지 염불삼매에 들 수 있거든요. 요즘처럼 계를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는 재가불자들도 절제하며 정도껏 계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불은 물론 삶을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도 늘 선(善)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세속에서 계를 지키며 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만이 선정에 들 수 있고 도(道)를 깨칠 수 있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재앙조차 비켜갑니다. 칠십 평생의 수행이력에서 내가 몸소 체험한 바입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며 그 뜻을 스스로 깨끗이 하라, 이것이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106

박 순 달

4大와 原子 ⑧ <끝>

물질의 생성과 불변성

기원전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을 질료와 형상으로 보았다. 즉 사물은 가능성에 있는 질료가 형상에 의해 현실태로 움직인 것이지 무에서 유로 변한 것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실체(實體)라는 것은 영원불변이 아니라 4개의 원인에 의해 생성소멸하는 것이라고 했다. 네가지 원인이란 질료인(質料因), 운동인(運動因), 목적인(目的因), 형상인(形相因)이다.

현대 자연과학의 물질생성론은 빅뱅(big bang)이론인데 1929년 허블은 대폭발로 우주가 생겼다는 이 설을 제시하였다. 과거 우주는 한 점으로 응축되어 있었는데 100~200억년전에 어떤 원인에 의해 폭발되어 지금도 그 폭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가지로 발견되고 있다. 대폭발설에 의하면 폭발후 0.01초후에는 천억도가 되고 전자, 양전자, 광자, 중성미자등이 생성되고 0.11초가 되면 3백억도로 식고 중성자, 양성자가 생성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주에는 점점 소립자로 채워지다가 10만년이 지나면 4000도로 식어 수소가 생기면서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드디어 빛도 생겨나게 되었다.

우파니샤드철학에서 우주발생은 태초에 유일한 유(有)가 있어 그것이 욕심을 일어켜 지수화풍의 4대를 만들고 여기서 더 복잡한 복합물을 만들고 이 속에 그 유가 명아(命我)의 상태로 들어가 명색(名色)이 되고 일체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하나(一)가 변하여 많은 것(多)이 되고 그 하나가 많은 것 속에 들어 가 본질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전변설이라고 하며 또한 원인(一) 속에 결과(多)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뜻에서 인중유과(因中有果)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아트만)와 우주의 범(梵)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부파불교시대에 오면 물질은 우주 공간에서 중생들의 업력이 동하여 생기게 된다고 설명한다. 물질의 기본은 지수화풍 4大이고 이 4大가 모든 물체를 성립시키는데는 열가지 인연이 있다는 십인론(十因論)을 발전시킨다. 10인은 6인(因)과 4연(緣)인데 6因에는 장애 없이 법을 생성하는 원인인 능작인(能作因), 함께 작용하여 산출하는 인자인 구유인(俱有因), 비슷한 다른 종류의 원인을 돕는 원인인 동류인(同類因), 서로 조화하여 동일 목적으로 향하는 원인인 상응인(相應因), 잘못을 일으키는 편견등에 관련된 원인인 편행인(遍行因), 원인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인 이숙인(異熟因)이다. 4緣은 결과를 산출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인연(因緣), 능작인과 같은 적극적인 원인인 증상연(增上緣), 무엇이 어날 때의 객관적인 조건인 소연연(所緣緣), 서로서로 일어나게 하는 원인인 등무간연(等無間緣)이다. 인연에는 6인중 5가지원인 즉, 구유인, 동류인, 상응인, 편행인, 이숙인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물체란 성(成), 주(住), 괴(壞), 공(空)의 4상(四相)을 되풀이 한다. 이 물질생성론은 그리스시대 물질생성론과 유사하다. 현대 자연과학의 빅뱅이론은 우

빅뱅이론, 우파니샤드철학과 유사
불교물질관 “생멸증감 없는 색즉시공”

파니샤드철학에서 어느정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1774년 라보아제가 질량불변의 법칙을 제시한다. 그는 밀폐된 용기에 115그램의 수은과 1.4리터의 공기를 넣고 가열하였다. 그랬더니 수은의 표면이 붉게 변하고 용기안의 공기가 줄었다. 다시 붉은 이 물질을 가열하여 종전의 기체만큼 다시 만들 수 있었다. 이같이 하여 얻은 기체를 처음 수은을 가열하였을 때 남아 있던 공기와 섞어 보았더니 종전의 공기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하여 물질은 그 형태가 변해도 구성원자는 변하지 않으며 전체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 질량불변의 법칙도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우주 전체가 그런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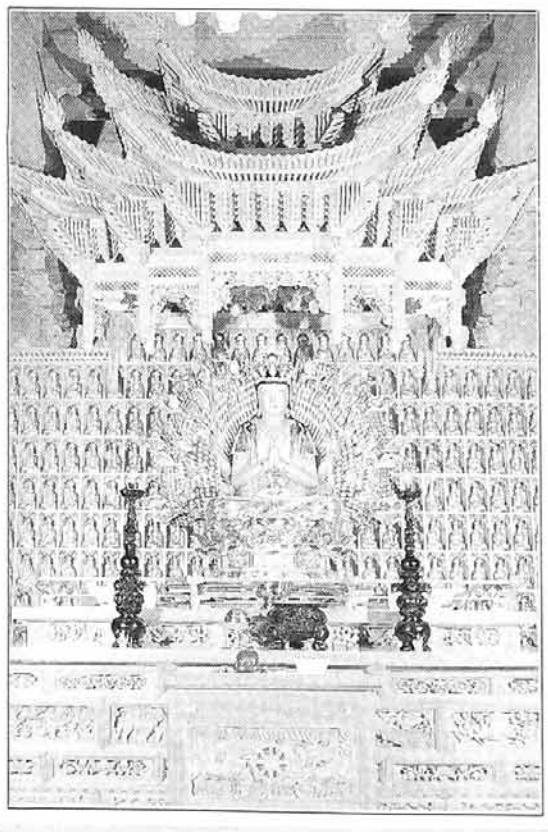
한편 불교에서는 유위법(有爲法)의 입장에서는 물체에 생멸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무위법(無爲法)은 생멸이 없는 것이며 증감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 물질을 여여색(如如色)이라 하고 또 진여색(眞如色)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물불천론(物不遷論)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진여색, 물불천론을 자연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서울대교수·산업공학과〉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고은 불교대하소설



116

그 뒤

그런데도 장마를 본분(本分)의 일과 직결시킨 한 관의 커다란 울부짖음이 없음을 어이하리.

물론 현실을 배경으로 삼은 것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부처냐고 묻자 동산(洞山)의 수초(守初)는 삼세근(麻三斤)이라고 말하였다. 무엇이 부처냐고 묻고 다니는 녀석이 입은 비싼 베옷이 세근 정도 되었던 것일까.

또한 선객(禪客) 만명을 다 구워먹고도 남을 속세의 방거사(龐居士)가 그의 처자와 함께 그동안 지니고 있던 가재도구를 싣고 동정호를 건너 양양으로 가려다가 풍파의 위기로 그 가재도구를 다 버리고 가까스로 처자만 살려내어 보내고 그 길로 혼자 떠돌다가 약산(藥山)의 유엄(唯儼)에게 가서 17년이나 지냈다.

그런 뒤 그가 떠나는 겨울날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그 눈을 가지고 전송하던 선객과 한두 마디 주고 받는데 선객은 "그대의 입은 열리고 있으나 벙어리로다"라는 방거사의 꾸지람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저 눈은 어디서 떨어집니까?"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 선객은 떠나는 사람한테 따귀를 두번이나 얻어맞는 것이다.

운문(雲門)의 가을바람(金風) 놀이도 있다. 어느 젊은 선자(禪子)가 말하기를 "이 세상은 영고성쇠를 면할 길이 없는데…나무가 시들고 잎이 떨어져 세상이 가을과 같이 되는 때는 어떠합니까?"

그러자 운문은 능청스럽게도 "그래 가을인가. 가을이 되면 좋은 꽃도 다 지고 잎도 다 떨어져 그늘도 없어지며 나무는 앙상해져서 그야말로 무엇 하나 숨김없이 드러나 당당(露堂堂)이다. 그래서 가을바람(秋風-金風)이 불지 않는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장마였다. 그런 장마 속에서도 몸이 회복된 대해나 그런 대해를 든든하게 여기고 있는 인담이나 얼굴에 터럭이 겁게 덮여있었다. 어느덧 인담은 흰 터럭도 솎아꼭질을 그만두고 나온 것처럼 희끗희끗하였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우녀 상을 소석들의 삭발한 머리도 수북하게 자라났다.

웬일로 인담의 삭도가 그들의 삭발일을 지켜주지 않고 있었다.

도든 것을 장마에 전가시키고 있고 장마에 의탁하고 있는지 모를 그런 음울한 시간만이 그들의 삶을 채우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인기척 따위도 없어져서 굵이 내리는 비를 피할 생각도 없이 흠뻑 젖은 옷 그대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큼!" "큼!"하는 잔 기침소리 따위를 잊어먹은지 오래였다.

그런 지루한 장마 가운데서 '날마다 좋은날(日日是好日)' 따위의 말은 도무지 떠오를 줄 몰랐다.

그런 장마철의 무욕도에서 인담이 기억하고 있는 1천7백공안 중의 몇가지를 행겨보아도 장마철에 걸맞는 그럴싸한 공안이 없는 성 싶다.

용이산도 여산도 현태산도 그보다 더 남쪽 천한 땅의 조계산도 그토록 많은 장마를 맞이한 곳이건만 장마를 주측(主則)으로 삼은 공안의 수작은 없었다.

특히 6조 혜능의 고장인 조계산 일대는 이미 아열대의 우계(雨季)에 드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한 본격적인 일침을 무덤으로 삼아 거기에 파묻혀 있을 수 밖에 없는 무능의 시간만이 끄떡없는 현실이기도 하였다.

그는 간화선의 공안과 화두가 다 헛수작으로 생각되었다. 아니 그의 묵조(默照) 그 자체도 공연한 노릇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였는지 그냥 눈감고 비몽사몽간의 얕은 잠에 들어가 꾸벅꾸벅 조는 일도 하루이틀이 아니었다.

도대체 긴 장마야말로 수행자에게까지도 근본적인 일침을 무덤으로 삼아 거기에 파묻혀 있을 수 밖에 없는 무능의 시간만이 끄떡없는 현실이기도 하였다.

> "섬 자체가 다 없어질 터인데 파도소리 위에 집을 짓겠는가 자네도 없어지면 누가…"

그 장마철 한달을 지냈다. 그 뒤로 10여일만에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해질만큼 실로 오랫만의 푸른 하늘이 장마비를 잔뜩 채우고 있던 허공 한 부분에서 그 푸르름이 쏟아질듯이 보였다.

그리고 비가 공인지 생사인지 모르게 개였다. 그 푸른 하늘의 한 부분이 차츰 전체로 넓혀지면서 지루한 장마의 비구름은 그 공무니를 빼고 만 것이다.

무욕도의 사람들은 입이 열렸으나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가슴의 고동이 속력을 내어 두근대기 시작하였다.

끝내 우녀의 입에서 한 마디 바람속의 말갈기 같은 느낌을 가지고 나왔다.

"참! 참으로 오랫만에 바다가 푸르러 제 빛깔을 되찾았네."

그녀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푸른 하늘이 반사되어 거의 흑회색이었던 그동안의 바다가 푸른 바다로 달라진 먼 곳의 수평선에 그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욕도는 아무런 일도 없이 그 지루한 장마철을 보낸 것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사람들이 살지 않고 비워둔 윗채 선방이 장마로 말미암아 무너져 그 기둥이니 서까래니가 다 바위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대해가 한쪽으로 치워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공안의 본측(本則)이나 송(頌) 따위에 나오는 빈 집(虛堂)인지도 모르지만 이 섬에서는 어이없는 현실의 일이었다.

하기야 그동안 함께 살았던 도반들, 그 사람들이 떠난 뒤이므로 그 윗채나 산꼭대기의 별채 따위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

지금은 인담 대해의 처소와 우녀 상을 소석들의 야단한 두 처소로 충분한 것이다.

이미 장마에 무너진 뒤의 목재는 치워놓았다 하더라도 그 윗채 법당 겸 선당의 여러가지 가재도구가 빗물에 씻겨가서 바다에 잠겨버린 것이 많았다.

대해가 말하였다.

"다시 지을까요?"

인담이 대답하였다.

"무엇하러 짓는단 말인가."

대해의 말문이 막혔다. 그 막힌 말문도 말이었던지 인담이 한 마디의 섬뜩한 대답을 덧붙였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도량 자체, 아니, 이 섬 자체가 다 없어져 파도소리뿐일 터인데…. 자네가 그 파도소리 위에 집을 지어보겠는가? 아니, 그런 자네도 다 없어지면 누가 짓겠는가."

두 사람은 뜨거운 늦여름의 햇볕 아래 요께의 재목들을 오랫만에 굴려서 말리는 중이었다. 여자들은 묵은 빨래를 하느라고 방 안의 공부 따위는 잊어버리고 땀방울을 뚝뚝 떨구며 신명을 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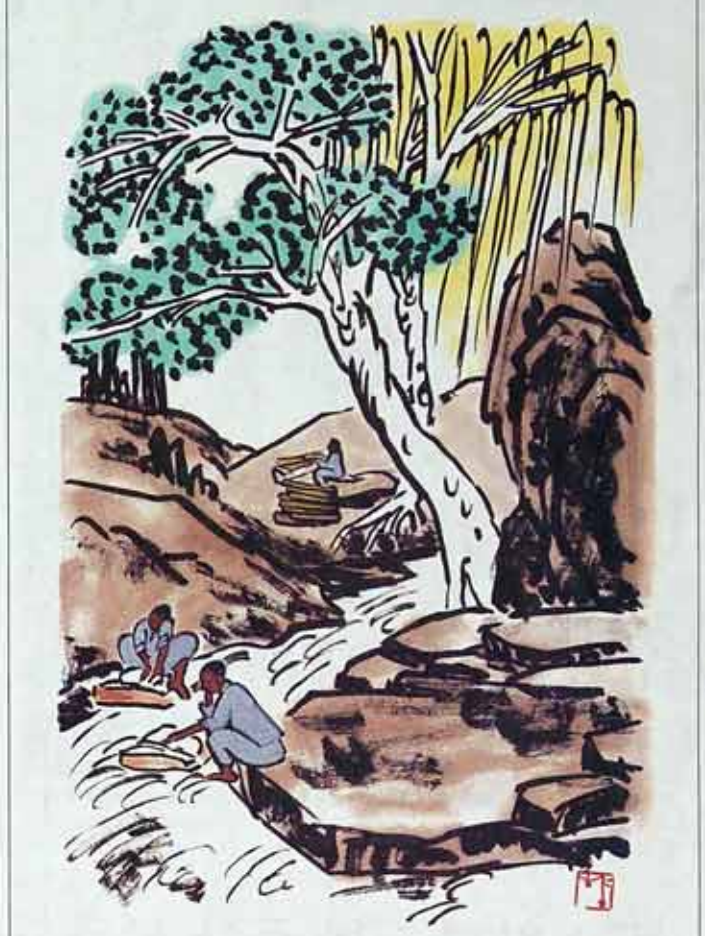
어쩌자고 바다는 물너울같은 평평한 수면인데 정작 물결은 삼가고 있는 것처럼 잔잔하였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오랜 장마의 습기로 싹어가는 느낌이었다가 이렇듯이 탁트인 날씨에 그 몸과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밝아졌다.

"금까마귀(金烏-해)를 보게 된 것이 오랫만이군."

대해가 말하였다.

언젠가 세상을 떠난 상수가 해를 금까마귀라 하고 달을 구슬토끼(玉兎)라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가 오늘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무너졌지만 법당 대들보를 잘라냅니까" "이제 火木으로나 쓸까 합니다"

그것으로 "다 벗어나고 다 드러나서 바람이 분다(體露金風)"의 한 마디로 진면목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것 말고는 능엄경에서 기인한 바 있는 소리듣기인 경청(鏡聽)스님이 누구에게 묻기를 "문밖에 무슨 소리인고?"에 "빗소리(雨滴聲)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대답 빗소리를 받아들여 그 빗소리에 제 정신을 빼앗기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남산에도 북산에도 큰 비가 줄줄 내리고 있는데 어떨 작정인가? 그대"라고 할 법하다.

인담은 가까스로 이 경청이 불쑥 내놓은 화두에 대해서 빗소리니 큰비 퍼붓는 소리니 하고 대답하는 궁여지책 자체가 싫었다.

이런 장마철에는 그저 입다물고 있는 입에 이끼가 끼어도 좋다고 여겼고 그가 앉은 방바닥과 함께 그의 몸에 푸른 녹빛의 곰팡이가 푸짐하게 덮여도 좋다고 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인담은 집 무너진 뒤의 재목들을 하나하나 몸질로 토막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우녀나 대해와 한 마디 의논도 하지 않은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저쪽 빨래터의 너럭바위에 있던 우녀가 빨래하던 손을 물에 헹구고나서 인담 쪽으로 올라왔다.

"웬일로 이렇게 잘라냅니까?"

"이제 화목(火木)으로나 쓸까 합니다."

"… 그래도 법당을 지탱해 준 기둥이고 대들보 아닙니까."

"대들보는 서까래든 이제 화목노릇이나 하면 딱 들어맞는 것들이오."

"호오… 법당 무너뜨려 불때면 아랫목이 제법 따뜻하겠습니다. 옛날 목불(木佛)을 아궁이에 넣어서 추위를 내쫓은 중이 있었는데… 화상께서는 그 중보다 한 수 위이십니다."

인담 우녀는 이번 장마 뒤로는 서로 오랫동안 말을 나눈 적이 없어서인지 오랫동안의 허물 없는 평교어(平交語)가 아닌 경어(敬語)로 말하게 되었다. 긴 장마가 그들의 말을 바꾸어놓았던 것인가.

우녀는 언젠가 불이한테 들은 단하천연(丹霞天然)의 엉뚱한 일탈(逸脫)을 떠올렸던 것이다.

중국 혜림사는 가난한 두메의 암자였다. 그 절 주지는 게으름뱅이였다. 겨울을 나기 위한 땔감도 마련하지 않은채 겨울을 맞았다.

그런 절에 천연이 두타행을 하는 중에 찾아갔다. 몹시 추웠다. 법당의 불상은 나무로 된 불상이었다. 그 불상을 업어서 부엌으로 갔다. 도끼로 찍었다. 불상의 머리도 두 쪽이 되고 몸체도 서너쪽으로 되었다. 불쏘시개에 부싯돌을 쳐 불을 붙였다. 이어서 그 불상 조각을 장작으로 땠다.

주지가 암자 아래 내려갔다가 와서 그 해괴망칙한 광경에 눈이 휘둥그래졌다.

"부처님을 조개어 아궁이에 태우다니… 도대체 네 놈은 웬 마군이냐!"

"허허… 부처님 몸 속에 사리가 얼마나 들었나 궁금해서 부처님 다비중(茶毘中)이라오."

"이놈아 나무로 만든 부처님인데 무슨 사리가 나온단 말이냐."

"그렇다면 나무조각이지 부처는 무슨 놈의 부처란 말이오… 그러나 저러나 춥구려. 들어갑시다."

천연이 더워지는 구들에 손바닥을 대고나서 "어허 부처를 태웠더니 이제야 따뜻한 방바닥일세"라고 깔깔 웃었다.

우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중과 이 섬의 인담을 어느만큼 견주어 보았다. 두 사람 다 실재인물이 아닌 것 같았다.

그림 · 조향숙

호신불 백의 관세음보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블루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보존이 가능한 99% 순은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 「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장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02)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호출 : 012-303-9207 ● 부산대리점 051)467-1933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고 독

어둠이
그리움되어
도시의 끝 자락을
덮습니다

침묵과 고뇌의 밤
수많이
적막을 깨뜨리고
공허한 가슴에
소슬한 바람이
그대의 맑고 깨끗한 이름이 되어
가슴으로 젖어 듭니다
울알바람
달빛 쉬기 스며는
그대 창가에 돌상 같 머다
그리움으로 엉키어
거만히 내려앉은
밤 어둠이 되겠습니다
머얼리 희뿌게 부서져 내린
파도를 업고
서로의 먼 눈빛으로
젖어

고독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회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극락 왕생의 길
佛 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불교식 장례를 대행하여 포교에 기여하고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드는 장례를
저렴하고 장엄하게 진행하여 드립니다.

불교식 장례 대행

▶ 재가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대행
▶ 수의 전문 제작, 영결식 기획대행
▶ 스님 장례 전문, 스님 수의 제작
▶ 여자 신도 및 비구니 스님 장례시 여자 보살님이 염을 해 드립니다.
▶ 장지 알선 및 이장 업무
▶ 천막, 파출부, 음식알선
▶ 무의탁 노인 장례 봉사 전문

전국 불교 장의 연합회
서울 대한 불교연화회 : 02-732-9618-9
광주 불 교 능 인 회 : 062-226-5161-4
대구 지장불교상조(주) : 053-654-0055
부산 관음손마을 장의부 : 051-818-6511-2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건강백세 ㊵

항생제 오남용 배탈 변비등 일으켜
가공식품보다 거친음식 섭취 장암 예방

큰 창자-결장

맹장을 지난 찌꺼기는 여전히 죽 상태이다. 결장을 지나면서 수분이 흡수되어 대변모양을 갖추게 되며 굳어지기 시작한다.

적당한 정도로 굳게 되면 연동운동에 의해서 횡행결장쪽으로 보내진다. 이 운동은 대개 식사시에 나타나는 위결장반사(胃結腸反射)에 의해서 하루 1~2회씩 일어난다. 그런데 체온조절이나 음식 혹은 약물에 의해 수분흡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변비나 설사가 일어나게 된다. 정상적인 경우는 하루에 변의(便意)를 1~2회 정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변비나 설사에 걸리면 식사때마다 화장실을 습관처럼 가게 되어 번거롭고 체력소모도 심하다. 병원에 가보면 장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보거나 만성 장염으로 인한 증상이라 진단하기도 한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는 병이 그것이다.





장이 예민해져 변의를 느끼게되고 배변(排便)하고 나야 씻은 듯이 속이 후련해 지니 큰병은 아닐지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원기(元氣)가 극도로 소진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등으로 기를 상승시켜 주고 복부를 보온해 주어 치료한다.

식중독 등의 후유증으로 배변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호소하는 소위 이급후중(裏急後重)증상에는 정장해주는 약재를 혼입 응용해야 한다. 대장에서는 수분의 흡수만이 아니라 소장까지의 과정에서 소화흡수 되지 못한 섬유질을 장내세균에 의해 분해 흡수한다. 이때에 남는 찌꺼기인 긴 섬유질은 장내에 붙어있는 끈적한 점성숙변이나 지방성 부산물들을 청소해주어 변비를 없애줌으로 피부미용이나 노화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생제의 오남용은 장내 세균체계를 파괴시켜서 어지간한 정도의 음식물의 변동이나 오염에도 견디지 못하고 배탈이 나는 등 장질환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변비는 이처럼 약물이나 장기능의 장애로 인한 것 외에도 긴장이나 운동부족 등에서도 발생한다. 특히 중년이후에는 장의 운동저하로 인한 가스 발생때문에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더욱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

최근 가공식품과 잘 분쇄된 식품의 과용으로 장암이 늘어난다는 의학보고가 있다. 거친 음식을 본격적으로 먹어야 할때가 찾아오고 있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이몸 끌고다니는 물건 찾아 ②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즐거운 세계 찾으려면 어떻게…"
'감사하는 삶 살라'는 구절 읽고
공기 마시니 너무도 상쾌했다

계율에 의한다면 나는 육도윤회중 지옥고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육식을 유별나게 좋아해서 닭이나 오리 등을 비롯 개도 직접 잡아먹었다. 정기적으로 고기를 먹지않으면 아플정도로 고기에 대한 욕심과 습이 배어 있었던 것 같다. 시골에서 태어났으니 자연히 살생할 기회도 많았고, 일찍부터 이성에 눈을 떠 음욕으로 인한 범죄행위에 속하는 짓도 수없이 많이 하였다.

술도 많이 먹었고 성격은 급하고 과격해 악담하는 버릇까지 있었다. 돌이켜보면 잦은 질병과 인간관계의 불화는 다 나의 탐욕으로 인한 과보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믿지 않을때라 짜증만 내며 세상을 원망하고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을 증오하였다.

군복무시절 고흥의 내발초소에서 야간근무중에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하며 머리속에 별의별 생각들이 교차하였다.

'이 세상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고 예쁜 것이 있으면 미운 것이 있고 깊음이 있으면 얕음이 있지 않은가? 나의 현실생활이 지금은 괴롭지만 반대인 즐거운 세계도 현실세계에 반드시 존재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있어도 자연히 때가 되면 죽을텐데 서둘러 죽을 필요는 없질않는가? 견딜수 있는데까지 견뎌보며 즐거운 세계를 찾아 보자. 찾아보고 전혀 즐거운 세계를 찾을 길이 없을 때 그때 가서 죽어도 늦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새로운 힘이 솟구침을 느꼈다.

즐거운 세계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누구에게 물어서 어떤 공부를 해야될까? 아무래도 군제대후 복학하면 학교공부를 계속해야 하니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학문이 아닌 영어를 해야할 것 같았다. 또 즐거운 세계를 찾아가려면 인격수양은 갖추어야 할 것 같았다. 영어는 내 수준을 판단해보니 중학 2학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 중1 자습서를 사서 끝내고 중2 자습서, 중3 자습서를 끝내니까 문법이나 단어에 어느정도 자신이 생겼다. 후일 복학하여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영어성적을 우수한 성적으로 올려 놓았다. 자기가 할 일을 자신있게 해 내는데서 오는 뿌듯한 기쁨과 주변에서 인정해줄때 오는 만족감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 이준석

그러나 인격완성은 쉽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불경은 어렵고 용어를 익히는데도 번거로웠다.

하는 수없이 에세이집이나 〈샘터〉와 같은 현대적 언어로 알기쉽게 적은 책들을 읽어나가며 '중요한 문장'이나 '멋있는 말' '명언'들에는 줄을 긋고 그것을 대학노트에 옮겨 적어나갔다.

양서나 종교서적들을 읽으며 적어놓은 글들을 수시로 읽어보며 뜻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암기도 하며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할때 대화소재로 이용도 해보 았다.

그러는 가운데 언변도 늘어가고 아는 것도 많아졌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알아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럴싸한 소리를 해도 일상생활에서는 평상의 습관대로 나쁜 짓을 했으며 마음의 괴로움도 그대로였다.

어느날 책을 읽던 중 '공기와 태양, 이웃과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느냐'는 구절에서 묘한 느낌이 생겼다. 마냥 공짜로만 주어지는 공기가 조금 탁하면 신경질 내고 태양이 조금 뜨겁게 비추면 짜증 내니 천지는 해를 끼치려고 하지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해를 만들어 자초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공기와 태양도 돈을 받아야 비로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들을 읽고나니 공기에 대해 새삼스럽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 없었다.

박 민 수
〈광주광역시 지산동 배재학원〉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⑥①

♦ The destruction of passion, the freedom from passion, the excellent immortality which Sakyamuni attained being composed, - there is nothing equal to that Dhamma. This excellent jewel is found in the Dhamma, by this truth may there be salvation.

석가모니가 일념으로 도달한 번뇌의 소멸·자유·불후의 명성과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훌륭한 브배는 진리(佛法)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사람을 구제하라.

♦ The purity which the best of Buddhas praised, the meditation which they call uninterrupted, there is no meditation like this. This excellent jewel is found in the Dhamma, by this truth may there be salvation.

부처가 가장 찬탄했던 청정심을 사부대중들은 '끊임없는 명상'이라고 한다. 청정한 명상과 대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뛰어난 보배는 이 진리 속에 있으며 이것으로 사람을 구제하라.

♦ The eight persons that are praised by the righteous, and make these four pairs they are worthy of offerings, (being) Sugata's disciples; what is given to these will bear great fruit. they are is given to these will bear great fruit. This excellent jewel is found in the Assembly (sangha) by this truth may there be salvation.

대중이 정직하다고 일컫는 여덟가지의 지위는 네 개의 상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된다. 그들은 부처님의 신도이며 보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베푼 사람은 과보를 얻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 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해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팩스 02/737/0697 광고국 전화 02/737/8881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종교용지 안내
▶ 위치: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이주민단지내
▶ 평수:305평(등기필)
연락처 : 0345)497-4455
삐 삐 : 012-332-1233

직원모집
"(사)한국 茶생활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다도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무를 볼 여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 전문대졸이상 (사무경력3년) 28세이상
■보 수 : 월 70만원(교통비 별도)
(사)한국 茶생활 문화원
전화 : 3672-4030~1

조 빙 평생가족
전통식품 영농조합 법인 이사 5-7명
■ 제품 : 호박중탕즙(엑기스) 산모에게 좋습니다(부기제거) 허약체질 보강 및 주독제거 어린이 성장발육, 여성변비 개발품: 칡의순, 지리산포도액, 사과청, 두충즙
■ 요건: 농촌을 아는사람 회사 지분율 10%와 지역총판권 가짐 법인이사 등기 기재 서울 강북2, 강남2, 인천1, 기타.. 명예퇴직자 및 식품유통 경험자 환영
■ 개인공장 설립생산 94년: 현자산금 5억원(부지250평, 건평 140평) 참여자금 : 5천만원
※ 농림부지정 (96년) 전통식품 ● 산청군위허 제5호
지리산 호박즙
농장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구미 231-1
전화 : 0596-73-7331/2

행동하는 불교
해동불교산악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산행하며 포교하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해동불교산악회 합장
사무국 (02)374-2254
375-2254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간경화·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사찰안내
▶ 위치:강원 영월군 남면 토교리 676-4 3/1
▶ 대지:약 760평 · 건평 108평
- 대웅전, 요사채, 부속건물 (신식건물)
- 관세음보살입상, 탑, 석등
※ 서울에서 3시간거리(차량진입 가능)
▶ 가격 1억5천(절충가)
연락처 : 0373)374-7417

사찰안내
▶ 위 치 : 장호원(발전요충지)
▶ 대 지 : 437평 ▶ 법당 : 27평
▶ 사무실 : 15평 ▶ 요사채 : 42평(방15개)
▶ 매매가 : 3억4천(급매)
▶ 전 망 : 평당 150만 이상의 요충지
※ 부동산 사절(직접상담)
☎ 0336)643-9051 · 0331)224-4995

물미물사
사암의 외부에 모시는 석불, 석납, 석등(돌)대신, 청동부처님, 청동탑 청동등(청동)으로 조성해 드립니다. 청동불사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 사암의 스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일자를 정해 본인이 직접 찾아 뵙고 원하시는 상호, 도안과 주위 조경 견적까지 상담해 드리겠읍니다.
☎ (0331)282-2931
(011)211-2931
삐삐 015-8415-2931

귀의 삼보하옵고
하이얀 도화지처럼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제작한 불교그림동화(완색) 「깨달음의 세계」 (6바라밀)및 단행본 「부처님일대기」가 재판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에 관한 출판 (소설, 시, 수필)및 사찰에 필요한 일반 홍보물등을 의뢰하시면 성심 성의껏 기획·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보시용, 단체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도서출판 하나원 TEL.(02)932-6327, 937-5759

유지원
경력 및 신입교사 모집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정 교 사	1명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실무경력자
부 교 사	1명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자격증소지자

2. 전형방법 : 가. 서류심사 나. 면접(개별통지)
3. 제출서류 : 가. 자필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자격증사본(수료증사본) 마. 불교신도
4. 제 출 처 :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1845-1 (T. 973-2242,2243)
보광사 부설 보 광 유치원장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0평, 요사2동(25평,조립식 51평)
▷대지 : 사용평수30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옴 사찰창건 30년이상됐음
▷가격: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포교당 안내
▶ 위 치 : 부천시 중동 신도시 입구
▶ 전 세 : 3천3백만원
▶ 평 수 : 25평
연락처 : 032)656-7523

포교원 안내
▶ 위 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 평 수 : 36평
■ 보증금 :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포교원 안내
▶ 위 치 : 서초 전철역 부근
▶ 평 수 : 60평 · 보증금 : 3000만원
※가격절충가
연락처 : 02)523-0241 523-0243

포교당 안내
▶ 50평 ·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기타절충
연락처 : 02)248-0479

좌골신경통 · 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전문시술원
院長 張三沫
주·五四三·七三〇六 야·七一一·四三七〇
압구정역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사찰안내
■위 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부 지 : 220평
■법 당 : 12평
■요사채 : 100평(구옥)
■가 액 : 상담후 결정
■특 징 :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명당터
☎ (02)762-2204
(02)745-6939
핸드폰 017-203-1599

십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권 출간!
우학스님 수필·시·소설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좋은인연 053)475-3707



"불교미술로 문화심미안 열자"

권형필교수— '실크로드 미술' 장충식교수— '한국의 불교미술' 출간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중견 고고미술사학자가 쓴 두권의 불교미술서가 나란히 출간돼 눈길을 끈다. 권영필 고려대교수(56)의 〈실크로드 미술〉(열화당 刊), 장충식 동국대교수(56)의 〈한국의 불교미술〉(민족사 刊)이 그것이다.

불교미술서로는 올해 처음 나온 이 책들은 전문적인 학술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대중적인 서술을 시도한 점이 특색이다. '문화유산의 해'를 겨냥한 일반인 대상의 교양서로 출간된 이 책들은 불교미술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을 이해시킴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관조하는 심미안(審美眼)을 키워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란 부제를 단 〈실크로드 미술〉은 250여장에 달하는 흑백·컬러 도판을 곁들여 실크로드미술사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책. "실크로드 지도는 중앙아시아에서 경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펴면서 불교미술을 포함한 한국미술을 실크로드 미술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한 점이 특징이다. 카슈카르·키질·바미얀·돈황의 불교벽화와 한국불화의 관계, 한국불화에 수용된 산수화적 요소의 원류와 발달, 고구려벽화와 신라인의 미의식 등을 심도있게 고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책에서 20여년동안 실크로드미술사를 연구해 온 권교수는 실크로드라는 방대한 지역에서 태동한 다양한 민족미술을 '소박성(素朴性)이라는 일관된 키워드로 분석해낸다. 또한 "실크로드미술은 중국의 변방미술이 아닌 비한족(非漢族)미술"이란 전제 아래 청동기시대이후 중앙아시아 미술과의 끊임없는 교류속에서 형성된 한국미술의 개성과 특징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서구학자들이 실크로드의 기점이 중국의 장안(長安·현재의 西安)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집착한 나머지 실크로드문화의 동쪽(한반도)으로의 확산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그의 설명. 현재 중앙아시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교수는 이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조만간 〈돈황벽화 100선〉도 펴낼 예정이다.

실크로드 미술 "경주까지 실크로드 지도 연장 돼야"

한국의 불교미술 불상·불탑·가람 등 분야별 정리

한편 〈한국의 불교미술〉은 90여컷의 흑백사진과 함께 불교문화재에 깃든 선인들의 믿음과 정성을 알기쉽게 설명한 본격적인 불교미술 개론서다. 제1장 '불교미술강좌'에서는 불교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불상 불탑 불화 불교공예 가람 등 분야별로 나눠 설명했다. 제2장 '미술의 향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미술 22가지를 재미있는 연기설화와 곁들여 소개했다. 제3장 '불교미술의 이해'에서는 불교미술의 조사방법론과 사상적 배경, 시론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불교문화재가 신앙의 산물이란 특수성과 관련, 관리상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한 점과 경주 남산 보존의 당위성을 역설한 점이 눈길을 끈다.

'문화유산의 해'에 처음 만나는 두권의 불교미술서, 이들을 통해 불상의 자비로운 모습이나 불탑의 평화로운 자태 속에서 선인들의 정신적 귀의처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명사추천 불서 100선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종교란 무엇이고, 불교는 어떤 것인가.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하며, 현대 한국불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그 답을 찾는 사람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 고(故) 고익진(高翊晋) 동국대 교수가 쓴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운주사 刊)이라는 책이다.

'고익진 불교시론집'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고익진 교수가 1971년부터 1983년까지 신문사와 잡지사의 원고청탁을 받고 썼던 불교관계의 글을 모은 것인데 23개 소제목의 글과 14편의 수필과 발원문, 참회문으로 되어있다. 23개의 소제목의 글중 어느 하나라도 흥미롭지 않은 것이 없고 불교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것이 없다. 그중에 몇가지 제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 한국불교 전통계승의 문제, 일불승(一佛乘)의 보살도, 불교의 종교적 본질, 불교 어떻게 믿을것인가, 불교학은 사람에서부터, 불교의 우주론, 아함의 무아윤회설,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시간개념, 원시불교의 인간관, 불교와 기독교 등이다.



전 현 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러한 소제목의 글에서 저자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명쾌하고 자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14편의 수필 또한 한폭의 수채화를 보듯이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이책의 끝에 붙어있는 저자가 만든 발원문, 참회문에도 저자의 불교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잘 드러나 있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1985년 가을인데 그때 나는 정신과 전공의 2년차로 정신의학을 공부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아는 사람의 소개로 저자가 지도하는 일승보살회에 가입하여 그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때 틈나는 대로 이 책을 읽었는데 일반인을 위해 쉽게 썼으면서도 결코 전문성을 잃지않고 깊이가 있으며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종교적 발심과 수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묘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저자는 원래 의대를 다녔으나 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절에서 요양하던 중 〈반야심경〉에서 '눈이 없다'는 대목을 보고 크게 의심이 나서 3년을 생각한 끝에 나름대로 의문이 풀리는 체험을 하였다. 그후에도 계속 불교공부를 한 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로 전학하여 학부와 대학원을 수료하고 1988년 타계할 때까지 불교학과 교수생활을 하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도 밝힌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함·반야·법화의 삼부경속에 체계적으로 시설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이들 각 경전은 독자적인 교리적 위치를 지니고 깨달음에 이르는 한 줄기 보살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한국불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교단혁신이나 포교현대화를 논하기에 앞서 이 삼부경에서 핵심적인 경전을 택하여 근본성전을 편찬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불교 어제·오늘·내일 진단

발심과 수행 이끄는 내용 '가득'

세상과 사람에게 열려있는 수행자像

힘든세상, 도나 닦지 효림 지음

화제의 책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이자 파주 보광사 주지인 효림스님이 30여년 동안 참선 수행 과정에서 만난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힘든세상, 道나 닦지〉에 묶어 감동적으로 담았다.

따뜻한 스님의 시선은 행자시절 무렵 만난 큰스님들에 대한 존경심, 운수납자로 도를 구하던 시절에 만난 도반들에 대한 애정, 악업을 행한 불자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까지 담고 있어 사람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느끼게 한다. 세상에서 외진 곳에 있는 선방과 아무도 찾지 않는 토굴에서 도를 구하는 것이 고독한 구도자의 길이지만, 진정한 도인의 길은 결국 사람과 세상으로 열려 있으며 동시대인과 함께 숨쉬는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 심리학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태백산에 토굴을 짓고 수도하던 비구니스님, 야승이며 기인인 적음스님 등 다양한 수행일화가 흥미롭다.

〈가서원 7천원〉

출판소식

전통문화硏 'CD롬 불교경전' 추진

(사)전통문화연구회(이사장 안병주)는 13종의 불경과 당·송대 고승들의 각종 어록을 망라하는 CD-ROM을 제작할 계획이다. 올해안에 나올 이 CD-ROM의 명칭은 〈CD-ROM 상우천고(尙友千古) 2〉. 일명 '불교경전 보고(寶庫)'로 불린다.

지난 1월 유교 13경과 제가백가서, 〈한시대성(漢詩大成)〉〈고전대성〉〈한어대사전〉 등 방대한 동양고전을 수록한 CD-ROM 검색시스템 〈상우천고 1〉을 출시(가격 50만원)한 바 있는 전통문화연구회는 두번째 사업으로 〈상우천고 2〉를 기획하고 전산입력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공정이 80% 정도 진행중인 〈금강경〉〈법화경〉 등 13개의 불경과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 등 선어록을 담는 이 CD-ROM이 완성될 경우 손쉬운 검색을 활용한 불교학 연구의 저변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홍선스님 '실천티벳불교입문' 번역



한국 티벳불교 친선협회장 홍선스님(홍국사 주지)이 〈실천티벳불교입문〉(무량사 刊)을 번역 출간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티벳불교에 대한 관심을 풀어주는 이책은 티벳불교가 지닌 오해의 여지와 그에 대한 해명, 티벳불교의 교리적 특성과 성립과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 티벳불교의 수행법이 지니는 특성, 의식작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선스님은 "세계적으로 포교의 주체와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한국 티벳 양국이 손을 맞잡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며 티벳불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다짐했다.

교수 10명 합작 '최치원 사상과 문학'



부산지역 교수 10명이 〈고운선생의 사상과 문학〉(신지서원 刊)을 발행해 눈길을 끈다. 부산지역 한국학연구모임인 파전한국학당(坡田韓國學堂) 소속 교수들이 펴낸 이책은 고운선생의 생애 사상 문학 등을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채상식교수(부산대)의 '최치원의 불교인식'과 김시황교수(경북대)의 '고운 최선생의 사산비명에 대하여'는 불교에 관한 고운선생의 사상을 보여줘 눈여겨 볼만하다. '최치원의 불교인식'에서는 선생의 불교인식의 경향을 남아있는 저술이나 비문을 통해 조명하고 있다. '고운 최선생의 사산비명에 대하여'에서는 고운선생의 사상을 '신라는 군자국'이라는 동방사상(東方思想)과 유·불동귀론(儒佛同歸論)적 입장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3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4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5	삼소굴 소식	명 정	극락선원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7	금강경 대강좌	이 제 열	여시아문
8	힘든 세상 道나 닦지	효 림	가 서 원
9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10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화엄경 강의(무비스님 지음)=〈화엄경〉 전 10권을 완역한 우리시대의 대강백 무비스님(승가대학원장)이 쓴 〈화엄경〉 길라잡이 책. 〈화엄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계품' 가운데 '근본법회' 부분을 한문원문과 아울러 조목조목 번역·강설했다. 〈불광 9천원〉

▲살아있는 禪(류원장 옮김)=오쇼 라즈니쉬가 〈벽암록〉 가운데 20여개의 선문답을 골라 특유의 '물아일체(物我一體)의 말하기 방식'으로 풀이한 책. 달마 조주 임제 조계 운문 등 옛 선사들의 선문답과 게송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라즈니쉬는 "禪은 죽었다. 오늘날 禪은 유일하게 살아있는 진리이다"고 설파한다. 〈성하 9천원〉

▲반야심경 그 생명의 드라마(송운하 옮김)=〈반야심경〉이 결코 난해한 경전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日 불교학자 마쓰바라 다이도의 해설서. "21세기는 마음의 기능을 개발하는 시대"라는 저자는 "물질과 정신의 상호작용을 空사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음사 7천원〉

▲卍의 위대한 힘(김종성 지음)=부처님 법체(法體)의 상징인 만(卍)자에 대한 해설서. 원심선원 김종성원장(마포중 교사)이 부처님이 중생교화의 방편으로 우주의 실상을 부호화한 卍자에 깃든 심오한 뜻을 과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해석했다. 〈보련각 4천5백원〉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스님 著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화/제/의/신/간/
운명의 카운트 - 다운 시대가 왔다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이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국판/값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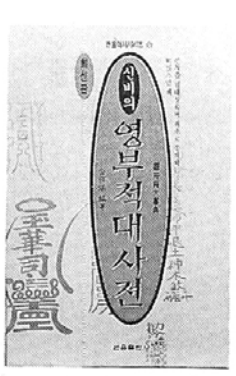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이책을 펼쳐 보십시오.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A5신/양장본
/35,000원

관음출판사 전화 : 921-8434 팩스 : 929-3470

금강경 독송회 도서출판 용화 전화)02-742-0172 팩스)02-766-9305

마음공부베스트 4

그 마음을 바쳐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닦는마음 밝은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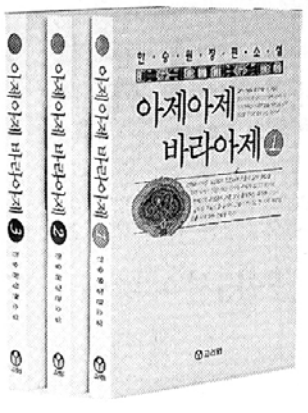
김재웅 지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길 가는 모든 이(道人)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금강경 독송회 엮음

"가자 깨달음의 세계로"

한승원씨 '아제아제…' 3권으로 개작



'아제아제 바라아제(가자 가자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한승원씨는 장편소설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끝을 해탈을 향한 진언으로 마무리했다. 이것은 생사고해(生死苦海)를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염원하는 생의 목표이기도 하다. 중생들은 자신이 처한 세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화두를 부여안고 더 높은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상적 세계에의 도달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두 비구니의 대조적이면서 고심참담한 삶의 행각을 통해 인간의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지를 규명하고 있다.

영화로도 상영되어 유명해진 불교소설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저자 한승원씨가 3권으로 개작해 내놓았다. 이 작품은 서로 상반된 처지에 놓여진 두 비구니가 자신에게 주어진 화두를 붙들고 깨달음이라는 절대 경지를 향해 걷는 험난한 구도 역정이 중심축이다. 선재동자처럼 끊임없이 정진하며 초월의 길로 참삶이 무엇인가 찾아나서는 진성스님과 세상도처에 부처가 있다고 믿으며 맨몸으로 중생들의 아픈 삶을 같이 겪으며 사는 환속한 비구니 이순녀의 구도역정이 빛과 어둠처럼 대조적으로 펼쳐지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진리를 일깨워 준다.

"상반된 삶 사는 두 비구니 자기정화 노력 통해 정토 만나"

진성과 순녀, 이 두 사람은 파란 많은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승적을 얻어 불가에 귀의한 은선스님의 제자들이다. 은선스님은 진성과 순녀에게 각기 다른 화두를 준다. 진성스님에게 주어진 화두는 '달마스님의 얼굴에는 왜 수염이 없느냐'는 것. 달마의 얼굴에 수염이 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난감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진성은 세상을 널리 떠돌면서 참삶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공부하며 수행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참자유를 얻는다면 달마의 얼굴에 수염이 있고 없고는 궁극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산에 남아있는 너의 혼령과 속세를 떠도는 너의 등신 가운데 진짜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순녀에게 주어진 화두. 순녀의 환속은 깨달음의 근원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 구현의 통로를 세사의 체험을 통해 찾아내려는 것이다. 그는 도처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도, 자기의 몸뚱이도 도량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계율을 파하고 속세로 나와 온몸을 던져 장애인학교를 설립한 의지력으로 혼령과 육신을 받아들일때 거기에는 깨달음에 필적하는 적선의 성취감이 있고 이것이 비록 세속의 풍파를 딛고 이룬 일이라 해도 불법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공덕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전혀 상반된 삶을 살지만 두 비구니는 오랜 방황속에서 결국 핏빛 생명력에 바탕한 참다운 삶의 구경(究竟)을 탐색해 나가는 자기정화의 노력이 곧 정토라는 깨달음으로 만나게 된다.

작가 한승원씨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소설의 주인공들과 함께 살아왔다. 나와 우주, 선과 악, 부처와 중생, 즐거움과 괴로움이 결국은 하나라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이 작품을 썼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79〉

허정도인 살게 하네

青山綠水萬重餘 (청산녹수만중여)	푸른 산 푸른 물, 일만겹 거듭거듭
中有蕭然一草廬 (중유소연일초려)	그 중에 있는 소연한 초가집 한 채
浮世風塵飛不到 (부세풍진비불도)	날아들 수 없는 뜬세상 먼지 구름
天敎虛靜道人居 (천교허정도인거)	하늘이 날 시켜 허정도인 살라 하네

이 시도 허정대사의 시이다. 제향산상운암(題香山上雲庵)이라 한 시이니, 묘향산의 상운암에서 지은 시이다. 암자를 두고 지은 시이지만 암자의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이 암자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주인공을 말하려 한 것이다.

자연을 설명함에 있어서 푸른 산 푸른 물이라 하면 일단 대자연은 포용되어 버린다. 여기서도 첫 구절을 푸른 산과 푸른 물로 흥기시키고 있다. 이 자체가 이미 깊은 산으로 인식되게 한다. 그러하건만 여기에서 일만의 거듭됨으로 깊이를 더 다지고 있으니 이런 배경으로 설정되는 공간은 쓸쓸하다 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 시의 소연함이란 표현도 시인의 의도적 구성이라기 보다도 그저 자연스러운 결구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초가집이라 함은 인위적 구성물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마저도 자연스럽게 이 산천구조와 어울리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소박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 구로 이어질 주인공을 허정의 비고 조용한 공간으로 유도할 복선일 수도 있다. 이 시를 감상하는 독자에게도 어느 사이 깊숙한 청산녹수로 끌려들게 하고 있다.

첩첩한 산수 중에 점 하나로 찍혀질 것 같은 이 조그만 암자, 여기에 바깥세상의 풍진이 들 리가 없다. 이렇게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산사이다. 이러한 암자의 주인공이 바로 작자이니 이것이 아무리 주인공의 선택에 의한 거처라 하더라도 자의적 선택이기보다는 하늘이 이미 예정해 두었던 것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사는 이의 이름이 허정이다. 글자 그대로 비고 고요한 허정의 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미 나를 위하여 이러한 공간을 유지했고, 이렇게 유지되는 자연을 작자인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여기에서 스님들의 무아를 다시 음미할 수가 있으며 그 자체가 바로 대상도 여의도 나도 여의는 해탈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이 시는 상운암이라는 암자를 읊은 것이기는 하지만, 암자의 소묘라기 보다도 이 암자에 사는 도인의 해탈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자료라 하겠다. 하늘이 허정도인을 살게 하였다는 표현은 자연을 자신의 것으로 독점하는 작자의 오만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 아닌 자연 앞에 숙연한 작자의 겸손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 시는 이런 면에서 자연과 암자, 암자와 주인이 하나가 된 좋은 어울림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뜰앞에 잣나무

대전 공연

19일 우송예술회관

정통불교연극으로 호평을 받은바 있는 '뜰앞에 잣나무'(원담스님 작 김태수 연출)〈본지 제98호 9면 참조〉가 오는 19일 대전에서 공연된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전 충남지부가 주최하고 예강기획(대표 이종운)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19일 하루 우송예술회관에서 오후 3시·7시 30분 두차례 공연돼 대전 충남지역 불자들에게 불교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극단 완자무늬에 의해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공연되어 '연극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는 극찬을 받은 '뜰앞에 잣나무'는 현대한국불교사의 최대 미스테리 10·27법난으로 인해 피폐된 한 가정을 배경으로 종교와 권력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역사의 인연고리를 풀어본 불교극.

폭넓은 인물 설정과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대사가 돋보여 관객들에게 자아찾기에 대한 쉼없는 화두를 던져준다.

관람문의(042)221-1994

충청·전라 문화유적 CD롬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



송광사 법주사 미륵사지 등 충청·전라도의 전통사찰과 문화유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CD롬이 제작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최근 1천2백여개의 불교 유적을 포함한 총 1만2천여건의 충청·전라도의 문화유적을 담은 〈전국문화유적총람〉 CD롬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유적에 대한 해설과 3천6백여장의 관련 칼라사진, 6백7십여장의 분포지도 등이 담겨진 이 CD롬은 유적의 종류·시대별 색인어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고 빠르게 유적을 찾을 수 있다. 또 컴퓨터 화면에 출력된 문자·사진·분포지도 등의 정보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열람할 수 있고 편집·저장·인쇄 등도 가능하다. 문화재연구소는 강원·경상도의 문화유적을 수록한 CD롬 3집을 년말까지 펴내고 오는 98년에는 북한의 문화유적을 포함한 전국 문화유적 종합편을 제작한다.



◇故 김복진씨의 대표적 불상작품인 금산사 미륵전 본존불(가운데 불상).

우리나라 근대조소예술계의 선구지로서 최근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정관 김복진(1901~1940)이 서구사상이 밀려들어오는 근대초기 개척자적 미학사상을 불상예술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 깊은 불심을 지닌 선구적 작가였다고 밝힌 논문이 나왔다. 한국최초의 조각가며 미술인으로는 유일하게 독립운동가였던 김복진은 한때의 좌익행적과 유존작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그동안 소외돼 왔었다.

윤범모교수(경원대 회화과)가 〈아세아문화연구 제1집〉에 게재한 논문 '김복진 불상예술의 세계'에 따르면 김복진은 근대적 조형감각과 전통미술과의 조화로운 합일을 꾀해 20세기 불교예술의 신경지를 개척한 조소예술가로 젊은 시절부터 불교를 자신의 정신적 사상토대로 삼았다는 것. 윤교수는 "1940년 김복진의 추도식에서 읽은 춘원 이광수의 조사내용중 '같이 중생활을 한 동지가 한사람있다는 말이며 또 동경 유학시대에 어느 절에서 득도하였단 말이며…'에 의거하면 동경유학시절 한때 승려생활을 한적이 있음을 알수 있다"면서 "불교사상이 그의 예술관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쳐 깊은 불심의 바탕에서 다수의 불상이 창작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산사미륵전 본존상과 소립원불상등 현존작품과 법주사 시멘트 대형불상(철거됐음)이 전부 미륵상인 것을 볼때 암흑기인 일제시대 김복진은 미륵의 조형적 구현을 통해 민족의 유토피아를 예시하려 했고 이는 민족의 주체성 제고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근대조각 선구자 故김복진씨 불상세계 재평가 하자"

한때 출가…깊은 불심서 나온 예술혼 표출

윤범모교수 논문발표

윤범모교수는 "김복진은 불교가 요구하는 도상학 즉 32상 80종호를 충실히 지키면서 옷주름이나 전체적 곡선에서 유려한 율동감을 강조하는등 자신의 창의성을 가미했다"고 극찬했다. 〈숙〉

문화 소식

중광스님 童心展 9일까지 대구동아전시관

파격적인 실험성으로 널리 알려진 중광스님(62)의 '동심전(童心展)'이 오는 9일까지 대구 동아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묵화 1백여점 도자기 20여점 유화 20여점 등 총 1백4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중광스님전시중 최대 규모인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은 대부분 파격의 미학으로 곧장 본질에 도달하려는 실험성과 어린아이의 마음같은 천진동심이 배여있다. (053)251-2111

안경수씨 창작가곡집 '연꽃만나고 가는…' 펴내



안경수씨(관음사 관세음합창단 지휘자·사진)가 그동안 작곡한 창작가곡을 모아 '연꽃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제목의 가곡집을 펴 냈다.

제주도내 중견작가들의 제주를 상징하는 향토색 짙은 시에 안씨가 곡을 붙인 이 가곡집에는 '천왕사' '관덕정' '관음계곡' '영실' '이어도' 등 불심을 바탕으로 한 가곡 12곡이 들어 있다.

3회 서울판화미술제 예술의 전당, 7~1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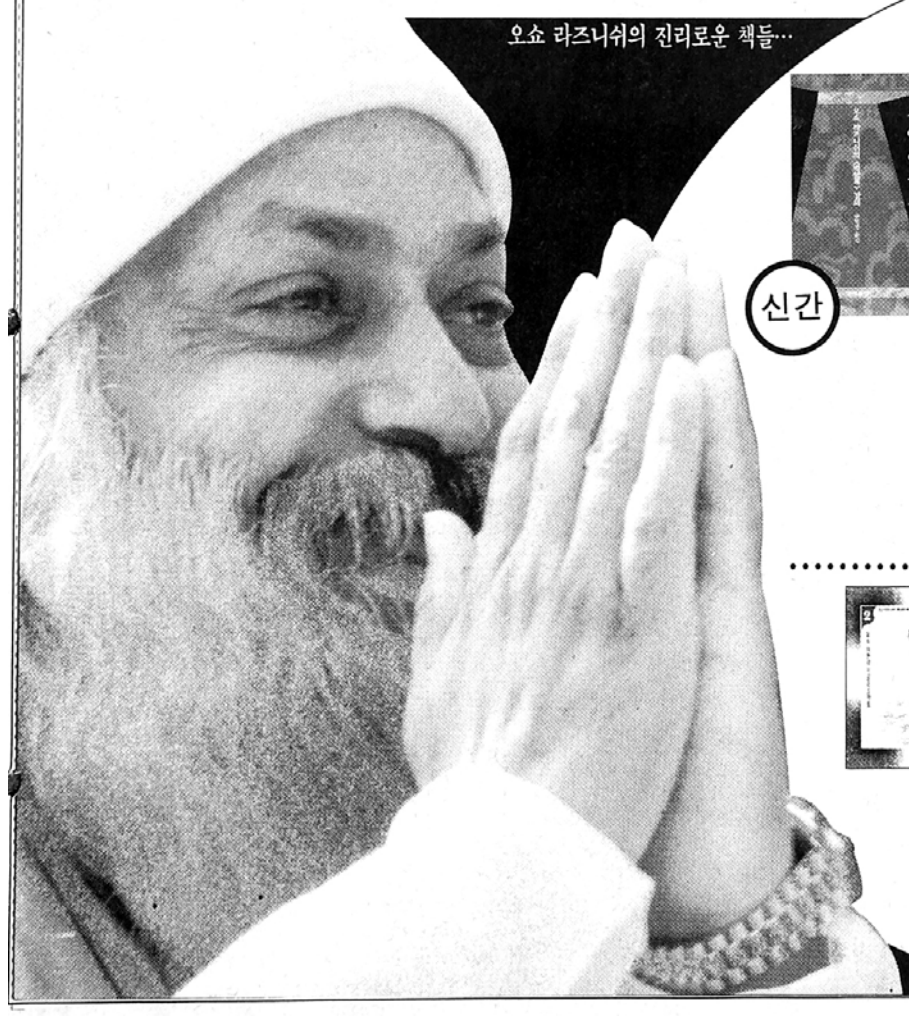
제3회 서울판화미술제가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린다. 한국판화미술진흥회가 주최하는 이번 미술제에는 60여곳의 화랑과 공방 관련업체들을 통한 180명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또한 '중국 목각판화의 흐름전' '벨트 96 선정작가전' 등의 특별전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수천씨 設經 초대전 공주민속박물관, 5월말까지

공주민속극박물관(관장 심우성)은 오는 5월 31일까지 박수천 법사의 설경(設經)초대전을 갖는다.

설경이란 창호지에 신령 보살의 모습과 부적 꽃무늬 등을 오려서 만든 것으로 주사를 섞은 붉은 물감으로 신령의 이름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넣어 만든 것이다. 박수천법사는 3대째 이어오는 설경전승자로서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무늬와 그물처럼 섬세한 철망등 설경 4백여점이 선보인다.



신간

살아 있는 선(禪)
– 오쇼 라즈니쉬의 〈벽암록〉 강의

성철 스님은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문제일서로 유명한 벽암록, 그중에서도 선가에서 손꼽히는 선문답을 20여 개 골라 어렵고 불분명하기만 했던 선의 세계를 오쇼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풀어헤친다.

류원장 옮김 / 380쪽 / 값 9,000원



42장경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 자신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우주적 농담, 재치 있는 예화를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1권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 448쪽, 제2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440쪽
황광우·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말없는 자의 말 (양장본)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이경옥·황광우 옮김 / 176쪽 / 값 4,800원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옛 선사들의 뇌성이 있다

!

TEL : 778-6826~7 FAX : 778-6828 성하출판

해인사

매머드 불교단지 조성

박물관·노천삼존석불·만불전등 '한곳에'

10년 계획…해인초등학교부지 2만5천여평에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성주)가 제2창건에 비길만한 대작불사를 계획중이다.

60여억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5백10평 지상 3층 규모의 성보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오던 해인사는 당초 방침을 바꿔 성보박물관외에 삼존노천석불 불교회관 대장경연구소 만불전 등을 망라하는 매머드급 해인불교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조성장소는 일주문아래 옛 해인초등학교 부지 2만5천여평.

이처럼 계획이 변경된 것은 기존의 경내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어 증개축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데다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수행풍토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대장경 이운 6백주년(1998년)을 기념하고 월드컵축구가 우리나라서 개최되는 2002년이 해인사 창건 1천2백주년이 되는 점을 반영했다. 삼존석불조성은 자운스님과 성철스님 생존당시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온 불사인 점도 고려됐다.

불사가 회향되면 본찰은 스님들의 전문 수행도량으로, 해인불교단지는 일반불자들의 신행공간으로 활용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원이 소요될 이사업의 최대관건은 재정문제다. 현재 확보된 재원은 성보박물관건립기금으로 모금된 35억원,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해인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도시기반이 취약해 재원마련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그외에 사중의 합의도출이라는 절차도 남아있다. 여러 문중이 모여 원융살림을 꾸려가는 도량인만큼 대작불사의 성공적 회향을 위해서는 대중합의가 전제로 남아있다.

해인사 기획실장 무관스님은 "일단 5월에 성보박물관이 착공될 예정이다"며 "문화재관리국을 포함한 문화계, 학계 등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거쳐서 전체적 윤곽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인사는 신라 애장왕 3년(802년) 10월 순응(順應) 이정(利貞) 두 스님에 의해 창건됐으며 현재 103개 말사와 16개 부속암자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사찰이다. 대작불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지난 95년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려대장경을 보유한 해인사는 명실공히 세계적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게 된다.

대구=이윤호 기자

경주에 한방병원

8월 개원…탁아소등도 운영



대구여래한방(원장 시연스님)은 8월경 경주시에 99평 5층규모의 한방병원 무료예식장 탁아소를 개원한다.

시연스님은 최근 "불교비법으로 만든 불치병치료를 위한 '不老化精(불로화정)'을 개발했다"며 "不老化精(불로화정)은 원래 산중사찰스님들을 위하여 검은깨와 감식초등 10여종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이라고 밝혔다.

고 침 본지 116호 14면 '부다피아 보은정사' 기사중 '경북 울산시 울주군'은 '경남 울산시 울주군'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망상실버타운이 동해시 1만평에 들어선다.

스님·불자전용 실버타운 생긴다

태고종 망상에 184실 규모…내년 7월 완공

태고종신도회(회장 김철회)와 (주) 망상실버타운(사장 이근모)은 지난 2월 25일 2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스님과 불자전용복지공간인 망상실버타운 기공식을 가졌다.

망상실버타운은 1만평 부지에 건평 4천3백평 1백84실을 갖춘 대규모 실버타운이며 법당을 갖춰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다.

98년 7월 완공예정인 망상실버타운은 총공사비 1백50억원(정부보조 89억원)이 투입되며, 태고종 신도회에서 스님과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종립학교 불교학생회

"새내기 불자 모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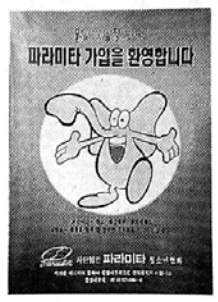
청교련·파라미타 회원 배가운동 전개

새학기를 앞두고 각 종립학교 불교학생회가 새내기 법우를 맞으려는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또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도 회원배가에 나섰다.

동대부중(교장 김원식)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종교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신입생포교활동을 펼친다. 종교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무종교학생, 불교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포교한다는 신입생 포교방안을 세우고 있다.

광동여고(교장 김양수) 불교학생회는 신입생포교를 위해 3월 한달동안 매일 조석예불을 봉행한다. 또한 포스터와 회보를 제작, 학생회를 소개하고 교법사와 회원들이 주축이돼 신입생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금년을 '효경사상 실천의 해'로 설정한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는 대대적인 신입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파라미타는 최근 추진사업과 활동내용 등을 소개하는 팜플렛을 비롯 포스터 〈사진〉, 스티커, 회원수첩을 제작, 전국의 각 사찰과 학교에 배포하는등 신입회원들이 들어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약 8천여명의 회원수를 2만여명으로 배가시켜 전국적인 청소년 단체로 위상을 강화한다는 것.



이밖에 청소년교화연합회를 비롯 각 종립학교 불교학생회도 신입회원모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컴퓨터 통신포교 '걸음마'

불교관련 8곳뿐…'파라미타' 3월 등록

전산시설이 낙후된 불교계가 행정전산망 구축과 가상공간 포교를 위해 상용통신망 활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콤 하이텔 나우콤 유니텔 등의 상용통신망에 등록된 종교관련 단체는 총 60여개. 이중 불교관련 단체는 13%(8개)에 불과해 불교계의 통신망 활용은 아직 걸음마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성타스님)가 오는 3월초부터 (주)나우콤에 '파라미타'를 개설한다고 밝혀 불교행정에 상용통신망을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의 상용통신망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용통신망의 규모와 비교해 뒤떨어지는 숫자. 국내 상용통신망 사용량은 'PC 공중전산망 가입수'로 알 수 있다. 지난 94년부터 95년까지 'PC 공중전산망 가입수'에 관한 통계정 자료에 의하면 전자게시판(BBS)의 경우 5백만여회선에서 8백만여회선으로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선 증가는 당연히 이용자 증가를 의미한다.

상용통신망에서 종교단체의 활동은 동호회와 폐쇄그룹(CUG)으로 각기 구분된다. 이중에서 행정전산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폐쇄그룹. 폐쇄그룹이란 특정 단체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회원 상호간의 업무연락 자료소수신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상용통신社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이용자를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가입이 자유로운 동호회는 일반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해 포교의 성과도 올릴 수 있으나 자료 보안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전산시설이 부족한 불교계는 하나의 자구책으로 상용통신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용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행정과 포교, 공개와 비공개라는 활용목적을 분명히 하면 된다. 〈욱〉

방송가 소식

가수금·비자금 감사

佛放 경리사고 대책위

불교방송 경리사고를 재감사중인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금 9억9천의 행방, 비자금 조성, 고위층 관련등 이번사건의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 감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베트남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김선도씨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가수금 내역 등의 문제가 어느정도까지 정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판단되고 있다.

대책위는 2월 28일까지 감사를 마무리짓고 이달 초 재감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중순경 이사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책임자 파면하라"

전불련 BBS사건 성명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은 지난 2월 26일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불련은 불교방송 조해형사장과 송병욱 재단사무국장의 퇴진을 촉구함과 동시에 불교방송의 공공성 확립과 여법한 운영을 위해 재단이 사회가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BS 초대석 녹원스님 편

23일까지, 수행담등 회고

불교방송 'BBS초대석(PD 박상필)'은 동국학원 이사장이자 직지사 회주인 오녹원스님을 초청, 스님의 출가시절부터 사미시절, 은사스님에 대한 가르침 등을 회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매일 밤 11시 25분에 방송될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30년동안 진행된 동국제일가람 직지사 중창불사 회향에 얽힌 여러 가지 숨겨진 일화들도 소개된다. 또 스님의 문화예술관, 자연관, 교육관을 들어보게 된다.

방송시간 확대편성

미주 한국불교방송

미주 한국불교방송(이사장 성채스님)이 주1회 1시간 방송을 4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사장 성채스님은 지난2월 25일 후원협의차 귀국, 조계종 포교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미국속에 불교를 전파하는 것은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일이다"며 "주4시간 방송을 위해 한국불자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탁소리

이종운씨의 소신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 연극이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흥행때문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이같은 불교연극을 꼭 불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섭외를 감행했습니다"

불교연극 '뜰앞에 잣나무'를 대전에 유치한 '예강기획'의 대표 이종운 실장(36)의 말은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한국연극의 중심지라는 동숭동 연극가에서조차 '벗기기·웃기기' 연극이 관을 치는 요즈음 정통연극은 서울에서도 본전건지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아는 이벤트 기획자인 그가 실패를 감수하면서 지방에서 불교연극을, 그것도 철학적이고 난해하다는 평을 들은 '뜰앞에 잣나무'를 유치한 것은 일종의 모험으로까지 보인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뜰앞에 잣나무'를 보고 크게 감명받았다"는 그는 "불자로서 이 연극을 대전에 유치해 문화포교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특이한 기획자다. 기획사 '예술이 흐르는 강(예강)'을 운영하는 그는 연극이나 콘서트섭외도 흥행될 만한 것만 고르는 것이 아니다. 또 한번 흥행을 보면 그 다음은 좋은 연극이나 꼭 하고 싶은 이벤트를 유치한다. 흥행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저질 작품을 유치할 생각은 없다는 그의 소신은 젊은 불자로서의 패기를 보는 것같아 흐뭇하다.

아무리 흥행이 우려되어도 초대권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이종운실장이지만 오는 19일 공연에서 빈자리가 너무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조바심때문에 대전과 충남지역의 사찰과 불교단체를 드나들며 연극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스님들이나 불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해 안타깝다.

"대전지역에서 불교연극공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자리가 너무 비면 불교연극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이경숙 기자

"우리것 좋은 것이여"

"옛날 놀이중에 이렇게 재미나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같이 꼬리따기도 하고 몸줄당기기도 하며 놀래요."

지난 2월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스님)이 개최한 '주민 민속놀이'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의 소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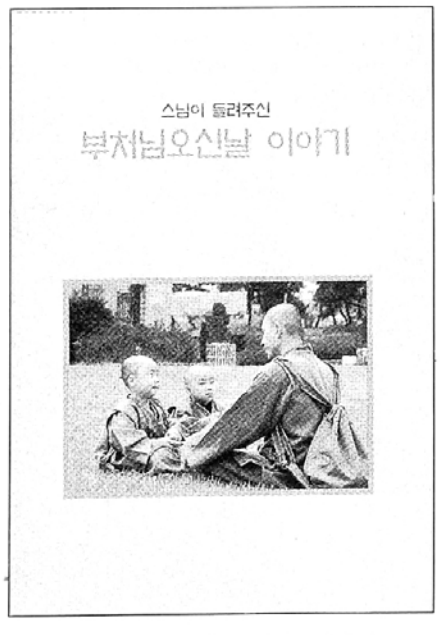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의 보름맞이 '민속놀이 큰마당'에 동참한 주민 6백50여명도 흥미롭고, 마음이 설레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국적도 뿌리도 없는 유령의 명절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몸살을 앓아야했던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민족고유의 놀이를 알리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같은 불교사회복지관들의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민족문화 전통을 살리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교복지관들이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강강수월래 신발던지기 등의 민속놀이 재현과 생활화를 통해 민족전통문화 회복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불교는 민족종교'라는 그동안의 외침에 대해 명실상부한 몫을 해내고 있다는 여론이다.

마을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어울릴 수 있었던 이날 놀이마당은 가족간 공감대를 형성한 시간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 스스로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긴 기회가 됐다.

흥겨운 어깨춤과 놀이를 즐기며 민족적 동질성을 느끼는 동안 '우리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시체(時體)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성황리에 마친 불교복지관의 이같은 우리민족문화 찾기 행사는 무분별한 서구문물에 오염돼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며,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확산 될 전망이다.

도필선 기자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법보시책자 보급안내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신국판(15.2cm×22.3cm) 80페이지
■ 정가/1,500원

스님이 들려주신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이야기, 등공양의 유래와 공덕, 관불의식의 유래, 봉축법문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초파일 법회 홍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파일 전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 봉축 발원문 1·2
연등공양 발원문/어린이 봉축 발원문
봉축시 1·2/팔상예문(八相禮文)

제2부 이야기 하나
흰 코끼리의 꿈/어린왕자 싯다르타의 탄생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새벽 별…큰 깨침
생명의 고향 열반으로

이야기 둘
부처님오신날 등을 켠다
만개의 등, 하나의 등
온 겨레의 잔칫날, 사월 초파일/등 공양의 유래
연꽃 등 밝히며, 거리를 밝히며

이야기 셋
초파일 아기 부처님께 길상수 부으며
관불 의식의 유래

제3부 봉축법문
봉축법어 1-무우수꽃 피는 룸비니동산
봉축법어 2-하안연꽃 피어나라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자 명단을 넣어드립니다

◈ 온라인 번호 ◈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연등공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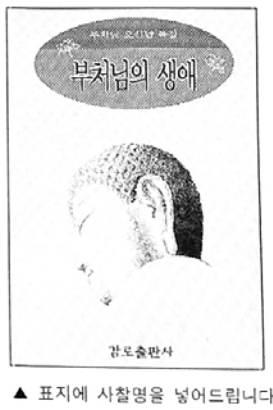
부처님의 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크기/신국판 64페이지 ■정가/1,500원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출생, 출가, 성도, 교화, 열반 편으로
나누어 신도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초파일 봉축법회때
신도님들의 불심을 돈독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크기/신국판 72페이지 ■정가/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02)738-8682

현불뉴스

조계종 결산종회 25일 개회

조계종중앙종회(의장 설정)는 지난 2월18일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제125회 임시종회(결산종회)를 25일 개회해 5일간의 회기로 개최키로 했다. 96년도 중앙종무기관 결산안을 심의할 이번 종회에서는 '중앙종회 운영규칙'도 제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2회 종회의원 연수를 3월 6~7일 강원도양양 보리수마을에서 '사찰환경'(강사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과 '종교와 정치'(윤세원 인천전문대 교수)를 주제로 실시키로 했다. 연수에서는 '중앙종회 운영규칙'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원불교연합회 창립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도후)와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지난 2월 26일 강릉 동해관광호텔에서 두 교구 본말사 주지스님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불교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도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기원법회와 신년교례회,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강원불교방송 설립 등 강원지역 불교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교사 논문심사 폐지

논문을 통한 포교사 선발과정이 폐지되고 고시로 일원화 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2월 24일 고시와 논문심사로 나눠 선발했던 포교사 선발과정을 금년부터 고시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96, 97년 두차례에 걸쳐 논문심사를 통해 포교사를 선발했으나 논문내용이 대부분 복제된 것이고 질적 수준도 낮아 포교사 선발요건에 부적합하다고 결정, 금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종 포교사 399명 품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2월 23일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신규포교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신규포교사 연수교육에서는 포교사 고시와 논문시험 합격자 3백99명에 대한 신규포교사 품수식이 실시됐다.

또 연수회에서는 포교사의 역할과 의무(원해 포교부장), 포교활동의 세부지침 설명(김관태 포교과장), 포교와 상담(신희권 자비의전화 사무국장)에 대한 강연도 진행됐다.

진관스님석방 후원의 밤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이 4일 오후 6시 동국대학교 동국문화관그릴에서 개최됐다.

대불청 노래패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설정(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선(전불련 의장)스님 고은시인(본지 논설위원) 김승훈신부 박형규목사의 석방촉구사가 낭독됐다. 또 진관스님 옥중서한과 진관스님에게 드리는 글이 발표되고, 인묵스님의 축원공연이 펼쳐졌다.

"생명존엄성 파괴 안된다"

'복제羊 성공' 불교계 시각

인간복제시대 예고 "인류혼란 우려"

"연기법 역행… 생명체 진화 저해"

지난 2월 25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소재 로스린연구소가 밝힌 유전공학에 의한 양(羊) 복제 성공 사실은 '복제인간'의 시대가 한층 가까워졌음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온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생명의 질서가 일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복제생명'. 재앙인가 아니면 발전인가.

생명복제는 유전공학의 기술에 의해 이뤄진 산물이다. 많은 불교학자들은 식량증산, 대체에너지개발 등 유전공학의 지향하는 바가 일체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불교의 세계관인 이미선(利美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일정한도 내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정도를 넘어설 경우 오히려 대치점에 설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를 위한 지나친 살생이나, 인간복제가 이뤄질 경우 중도에 어긋남은 물론 연기법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은 "〈우존왕소문경〉에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듯이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며 "한 생명이 부모자식 3연의 업으로 이뤄진다는 교리상의 혼란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용정 박사(동국대 명예교수) 역시 "인간복제로 인해 자연의 원리가 깨진다면 불교의 중도사상이나 연기법, 생명의 존귀함을 말하는 각종 계명은 한낱 고전(古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윤리적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진씨(신경정신과원장)는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귀함을 설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부처님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복제했다고 해서 똑같을 수는 없다. 업까지 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제인간에 대한 윤리적 문제 자체가 창조론을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에서나 문제될 뿐 인간평등(모든 인간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설하는 불교는 이 같은 문제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간복제에 대해 불교의 '윤회'나 '업'사상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는 분분하다.

양형진교수(고려대 물리학)는 "불교적 윤회의 의미는 똑같이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전자 복제가 윤회와 상치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지장신앙, 아미타신앙 등의 내세적 신앙은 불교의 중심사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업의 개념 또한 이와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광서교수(서강대 물리학) 역시 "형태가 같다고 해서 전생의 업이 같을 수는 없으며, 복제인간은 업을 안은 생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교수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반면 전재성교수(한국불교대)는 "인간복제는 과학기술로 인해 공업(共業·여러 사람이 업을 짓고 받는 것)을 짓는 것이며, 업의 행위에 의한 생명체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 창립

회장에 송재건씨



조계종 직할교구(조계사)신도회는 지난 23일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혜창스님을 비롯 직할교구 소속 말사 신도회장단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송재건씨(59·중원미디어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회칙을 통과시켰다.

송 회장은 "불교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직할교구신도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감사에 이현수(화계사 신도회장) 김경애씨(수국사 신도회장)를, 부회장에 손현수(영화사 신도회장) 이연세(석왕사 신도회장) 한재구(내원정사 신도회장) 백영기(도선사 신도) 홍옥진(조계사 신도회장) 명을식(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박종민(봉국사 신도회장) 임정옥씨(승가사 신도회장)를 부회장에 임명했다.

김해·울산에 유치원 개원

통도사 부산포교원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 부설 유치원이 김해와 울산 두 곳에서 동시에 개원된다.

6일 김해 연꽃어린이집에 이어 7일 울산 보리수어린이집이 각각 개원식과 함께 130명의 입학식을 갖는다. 두 어린이집은 대지 3백평에 건평 1백20평의 규모의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서 있다.

이로써 통도사 부산포교원 부설 유치원은 부산에 2개소와 김해 울산에 각 1개소씩 모두 4개소이다.

한민족불교회 출범
승·재가 1천명 동참

한민족불교중흥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정념·상원사주지)는 20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민족불교중흥회 창립준비위는 지난해 6월 발기대회를 가졌으며, 현재 승·재가를 망라해 1천여명이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장에는 조계종총무원의 한 현직부장스님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인정원의견 못좁혀
승가대학령 공청회

조계종교육원(원장 원산)은 승가대학(강원)령 시행을 앞두고 일부 교구본사와 승가대학에서 이견을 제출함에 따라 승가대학령 시행에 따른 공청회를 지난 2월 25일 서울 법련사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5시간에 걸친 토론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되는 학인정원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만 제시했을 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학인정원을 교육원은 40명, 교구본사와 강주 학인대표는 각각 20명을 제시해 현격한 의견차이를 나타냈다. 최대인원은 8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교수수는 교육원에서 제시한 5명 이상에 대해 대체로 적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총무원과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국대 일산캠퍼스 올해 착공

불교종합병원도… 발전기금 322억 모금

동국대가 학교발전기금 3백22억원을 조성하고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일산 3캠퍼스와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가시화했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2월 28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1천5백여명의 사부대중을 초청하여 학교발전기금 3백억원 조성에 따른 '감사와 축하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1천베드 규모의 불교종합병원과 일산 3캠퍼스 올해 착공계획을 밝히는등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탤런트 이덕화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발전기금 조성에 기여한 월주(조계종총무원장) 운덕(천태종총무원장) 고산(쌍계사회주) 동광(도선사주지) 정우(구룡사주지) 대행(한마음선원장) 혜운(고림사주지)스님과 정상영(고려화학) 이순목(우방)회장 박해순(우리재단)이사장 등과 태응(불교TV) 도업(금수선원장)스님 등에게 감사패와 공로패가 수여됐다.

지난해 '비전! 동국 100년'을 선포해 불교계와 기업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1월말까지 3백22억원의 동국발전기금이 마련됐다. 이가운데 발전기금 1백98억원(61.39%) 장학기금 15억원(4.79%) 연구기금 1백9억원(33.82%)이 기탁됐다. 동국대는 97년도 주요사업으로 △대학별 학과별 기금조성 △동문모교방문 활성화 △동국인 5만명 정보전산화 △ 동국UIP 발표회 △만불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지난 2월24일 전법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전법은 불교도 모두의 사명"

조계종, '전법의 해' 선포…10대 사업 발표

조계종은 지난 2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비롯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전법의 해' 선포식을 봉행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월주스님은 종도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전법은 불교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진리에 대한 믿음의 자신에 찬 표현"이라며 "전법행에 모든 불자들이 대원력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전법의 해 10대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전법도량 지정 및 지원금 제공 △도시지역 중심 불교교양대학 건립추진 △문화재사찰 안내 프로그램 실시 △전법 5개년계획 수립 △각 사찰 불교입문교육 의무화 △포교실적 인사고과 반영 △전국불교지도자 대회 개최 △포교대상 수상자 확대 및 상금 증액 △재적사찰 갖기 지속추진 및 신도회 활성화 △인터넷 통한 한국불교 홍보.

불자 10년동안 220만 증가

통계청 95년 인구全數조사 발표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455만4천여명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천259만8천여명(50.7%)으로 이중 불교인구는 1천32만1천여명(23.2%)으로 밝혀졌다. 개신교는 876만여명(19.7%) 가톨릭 295만1천여명(6.6%)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청이 지난 2월말 발표한 1995년 11월에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 최종 전수(全數)집계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결과는 정부기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인구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8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인구와 비교해 종교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본지 93호 1면 참조〉

종교인구 50.7%
불교·개신교·가톨릭順

불교는 1985년 조사된 806만여명(전체의 19.9%)보다 226만1천여명 늘어나 10년간 3.3% 증가했다. 개신교는 227만1천여명 늘어나 3.6%의 증가를 보였고 가톨릭은 1985년에 186만5천여명이었는데 10년사이에 108만6천여명이 늘어나는 급증세를 나타냈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30대 이하 젊은 층의 구성비가 각각 72%, 67.5%(불교는 56.4%)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불교 26.6%, 개신교 15.4% 가톨릭 17.6%로 나타났다. 〈숙〉

약파는 성지순례
사찰·신행단체 '피해'

솔표 조선무약이 불자회를 사칭해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행사지원을 빌미로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솔표 조선무약은 지난2월 23일~24일 서울 금강선원 불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남해 보리암일대로 성지순례를 실시하면서 홍보비디오 상영, 건강식품 안내, 회사소개 등 약품구매를 부추기는 분위기 조성에만 급급했다고 동참했던 불자들은 분개했다.

마음 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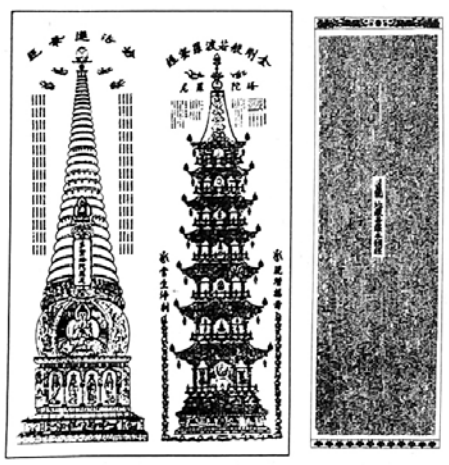
앞도 없고 뒤도 없이 놓고 나갔때 비로소 앞생각도 끊어지고 뒷생각도 끊어져 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무심으로 놓고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오는 인연 막지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어디에도 걸림없는 도리를 알게되고 참이 없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항마육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세로) 160㎝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것인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사용하여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3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 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 스님용 불탑다라니 사용방법책자, 신도용 영험집 책자,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친족연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수자영가 천도방법, 수자영가 불명짓는법 등이 수록된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사용해주시고,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등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 등을 제시해 드림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요. 큰힘이 되실 것 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회장 혜천)
부설 : 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한국역학대학
97년 신입생모집

1. 목적 : 국내 최초 공신력 있는 역학 교육기관으로써 심오한 동양철학(역학)을 누구나 쉽고 바르게 교육시키며 올바른 역학인(카운셀러)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간 및 과목
교육기간 : 6개월
교육과목

오행역학	명리학	성명학	상담학

3.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접수기간	전형방법	입학금 및 수강료
정규반:50명 통신반:50명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5매	97년2월17일 ~ 3월 29일	남·녀 누구나 선착순 접수	입학금 30만원 수강료 월10만원 (교재 및 강의 테이프 포함)

4. 특전
● 본대학 졸업장 및 역리사 자격증 부여
● 자유직업을 원하시는 분 공인 역리사 활동 취업보장
● 졸업후 회망자에 한하여 일본 역도대학 유학알선
● 지속적 교류 및 역학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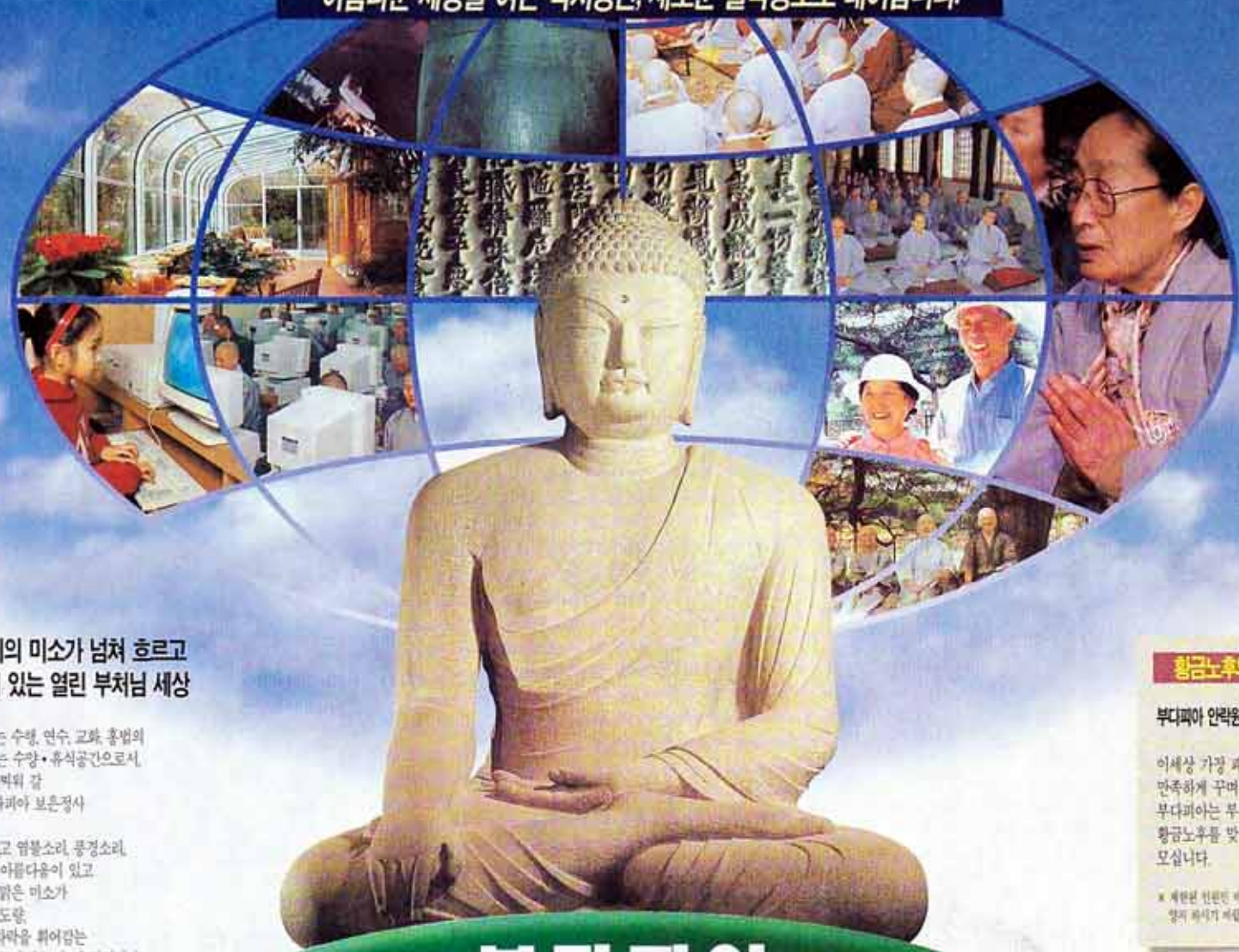
한국역학대학
서울 송파구 송파1동 15-3 해광 B/D4층
대표전화 (02)423-6446

BUDDHAPIA란
부처님(BUDDHA)과 이상향(UTOPIA)의 합성어로서
부처님과 함께하는 열락의 세상 즉
불국정토를 의미합니다.

新·佛教空間

생활밀착형 新·불교공간 - 부다피아 보은정사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복지공간, 새로운 불국정토로 태어납니다.



깨달음의 희열, 자비의 미소가 넘쳐 흐르고 진정한 생의 열락이 있는 열린 부처님 세상

보리심과 육바라밀이 살아 숨쉬는 수행, 연수, 교화, 홍법의 장으로서 안락하고 훈훈함이 있는 수양·휴식공간으로서, 만족과 기쁨으로 몸과 마음을 살찌워 갈 새로운 생활불교의 한마당 - 부다피아 보은정사

죽비 소리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염불소리, 풍경소리, 새소리, 솔바람 소리가 어우러진 아름다움이 있고 사부대중이 한데 어우러져 밝고 맑은 미소가 부처님 얼굴마냥 한마당 가득한 도량, 여유로움과 열락이 안개마냥 산자락을 휘어감는 열린 부처님 세상 진정한 불국정토가 수놓아 질 것입니다.

황금노후의 장이 열립니다.

부다피아 안락원·일심원 평생 대중 초청

이세상 가장 쾌적하고 안락하며 만족하게 꾸며질 신행, 휴양·복지공간 부다피아는 부처님의 품에서 황금노후를 맞이할 노불자 평생대중을 모십니다.

※ 제한된 인원인 관계로 입방대중의 선별이 다음을 알지 못하기 바랍니다

부다피아 보은정사

부처님의 자운법우(慈雲法雨)가 자욱하고
자광법열(慈光法悅)이 가득한 부다피아 보은정사 -
이 시대의 진정한 불국정토로 다가옵니다.

자연환경 **부다피아에는 사계절 살아있는 깨끗한 자연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목탁소리에 운무가 안개마냥 피어오르고, 청을 열면 3면이 푸른 숲, 맑은 물, 청량한 솔바람 아름답게 들려오는 새소리, 풍경소리 ... 돌담가엔 수국과 옥잠화가 피어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약속받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살아있는 깨끗한 자연이 있습니다.

주변환경 **인근에 명산, 명찰, 명승지가 즐비합니다.**
불국사, 석굴암, 석남사, 통도사, 밀어사 등의 명찰, 명산, 명승지가 인접한 국토 동남권관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풍요로움과 여유가 항상 함께합니다.

교통환경 **어디든 한걸음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울산공항과 시내에서 10분, 경주와 부산이 2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30분이면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연결 전국 어디로든 연결 됩니다.

생활환경 **어느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품격생활이 있습니다.**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다양하고 만족한 프로그램과 세심한 봉사로 삶의 보람, 생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운영됩니다. 건강관리, 사후관리에까지 완벽을 기합니다. 안온하고 품격높은 실내·외 분위기와 21세기 문화생활을 연출합니다.

첨단시설 **최첨단 시설로 지어지는 미래불교의 효시 입니다.**
광케이블로 전체공간과 시설을 연결한 첨단 전산·정보통신망을 구축,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회원, 봉자관리, 생활, 업무, 시설관리와 안전, 경비는 물론 위성통신 수신장치 디지탈 교환시설 등으로 편리를 위한 최첨단 미래불교의 장으로 탄생합니다.



시설내용
① 대웅전 ② 일심원 ③ 관음전 ④ 원융당 ⑤ 산옥탑(사우나)
⑥ 청풍당 ⑦ 심향전 ⑧ 안심료 ⑨ 심우당 ⑩ 극락전
⑪ 해길선원 ⑫ 지장전 ⑬ 연화장원 ⑭ 대불각 ⑮ 교육·수련원

수행공간 **영산회상의 재현이 펼쳐지는 참 수행도량 입니다.**
견성 성불, 해탈, 열반이 한 자리한 더없는 법열의 공간이며 학처럼 여유롭고 바람처럼 자유로이 수도, 정진, 교화, 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만법이 하나된 청정수월 도량입니다.

복지공간 **복된 삶, 황금노후를 약속하는 안락정토 입니다.**
고통스런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생활하고 안락하고 쾌적하게 휴양할 수 있는 무릉도원 이며 황금노후가 열리는 안락정토 입니다.

교육공간 **도재양성, 미래불교의 큰마당 입니다.**
강의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영상실, 전산실, 도서관 등의 교육, 수련시설과 각종 복리·후생시설, 문화, 오락, 휴식공간 및 심신단련 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춘 미래불교의 장입니다.

신행공간 **생활불교, 서비스 불교의 새로운 장입니다.**
기도, 신앙생활, 교육, 문화, 정서함양, 휴식공간과 포교, 복지사업 및 서비스 시설 공간으로 꾸며 집니다. 현대적 시설과 공간조성, 편리하고 편안한 동선체계와 분위기로 생활과 신행이 하나되는 생활밀착형 新·불교공간의 본산이 될 것입니다.

장묘공간 **영원한 생을 누리는 극락세계 입니다.**
첨단의 설비와 현대적 시설로 꾸며지는 연화장원 지장전은 영골·위패단과 영골묘원(부도, 탑전)으로 구성되며, 선망부모, 조상님을 극락정토로 인도하여 극락왕생의 무량생명을 누리게 할 회엄장의 세계로 가는 기교이며 보은의 전당입니다.

부다피아 보은정사는 불자 여러분이 가꾸고 향유하게 될, 여러분이 곧 주인인 新 불교타운입니다. 불사동참으로 무량공덕을 쌓고 선연의 씨앗을 뿌립시다. **불사 및 입방문의 : 77-3460, 98-5543**



부다피아 보은정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 공간과 시설물 및 정보·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는 특전을 드리며 본원에서 발간하는 홍보지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저희 홈페이지 이용과 각종 행사에 초대됩니다.

- 특별회원 : 월 5만원 (년회비 500,000원)
- 일반회원 : 월 2만원 (년회비 200,000원)

모 십 니 다

부다피아 보은정사와 함께 할 차세대의 주역을 모십니다.

- 불사추진 스텝 및 관리 스님 :
  내·외전 갬비한 조계종 승니 (35~40세)
- 불사 및 일심원 봉사모원
  신심 돈독한 독신 불교신도 (20~30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직할
부 다 피 아
보은정사
울산시 울주구 농소읍 천곡리 산101
사찰전화 (0522)98-8133, 98-5543
불사본부 (0522)77-3460, 48-3459

●온라인 구좌번호 · 국민은행 125-21-0079-606 · 부산은행 130-02-000413-9 · 경남은행 590-21-0072373 예금주 : 박영룡 ■부다피아 보은정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